



제 401 호 2015년 8월 5일 발행

발행인 안산시장 제종길
발행처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87 안산시청 공보관

무료 정기구독 신청
TEL : 031-481-2042 FAX : 031-481-3224 E-mail : bravo@iansan.net

브라보 안산

Ansan city Newspaper
Bravo Ansan

안산시와 SNS로 친구맺기

[b blog.naver.com/cityansan](http://blog.naver.com/cityansan)

[t twitter.com/ansancityhall](https://twitter.com/ansancityhall)

[f facebook.com/ansancity3](https://facebook.com/ansancity3)

story.kakao.com/ch/ansancity

02면 특집 / 여름방학

무더운 여름, 이번 여름방학은 도서관에서 더위를 이겨봐요

04면 생태·관광

서해의 아름다운 풍광과 마주하다
대부해솔길 1코스

06면 문화·예술

안산M벨리록페스티벌,
화려한 축제의 막을 내리다

8면 숲의 도시, 안산

어른들의 쉼터, 어린이들의 놀이터
'둔배미공원' 이야기



어디에 숨었을까?

방학을 맞아 대부도 선감어촌체험마을 '조개잡이 체험행사'에 참여한 학생들이 갯벌 속 조개를 찾아 분주하게 호미질을 하고 있다.

사진 김진국 명예기자 <hanmarus@naver.com>

무더운 여름, 도서관에서 함께 더위를 이겨봐요



안산시 공공도서관 방학 맞은 초등학생 대상, 다채로운 방학특강 마련

안산시 공공도서관은 매년 방학을 맞은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방학특강을 마련한다.

이번 여름방학에도 초등 고학년 대상 '제91회 여름독서교실'을 진행하고, 도서관마다 독서교실에 성실히 참여한 우수학생 2명에게는 안산시장상,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장상을 수여한다.

안산의 대표도서관인 중앙도서관은 2015 안산의 책「수상한 아파트」를 활용한 토론과 글쓰기, 우리집·마을 만들기를 통해 '우리의 이웃'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을 갖는다.

단원구는 8월 5일(월)부터 9일(금)까지 관산도서관을 중심으로 단원어린이·원고잔도서관과 함께 '도서관, 숲과 함께'를 주제로 글쓰기, 북아트, 정크아트, 숲체험 등을 진행한다.

상록구는 감골도서관을 중심으로 상록어

린이·성포·본오·부곡·일동도서관 및 공립작은도서관에서 'Book To 대장정'을 주제로 8월 10일부터 14일까지 초등대상 여름독서교실을 운영한다. 음식 만들기, 지도퍼즐 만들기, 독도지도 만들기 등 도서관별 다양한 독후활동을 통해 어린이들이 올바른 독서습관을 형성하고 독서를 생활화하도록 유도해 평생교육의 장으로서 도서관의 역할을 다하고자 한다.

이외에도 저학년을 위한 방학특강, 민속잔치, 놀이극, 미술놀이 등 방학을 맞은 어린이들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 단원구 도서관 문화행사

도서관명	프로그램명	기간	대상	주요내용
관산 / 단원어린이 / 원고잔	고학년 여름독서교실	8.3(월)~8.7(금)	초등 (고학년)	'도서관, 숲과 함께'를 주제로 도서관별 다양한 독후활동 (독후감 쓰기, 토론, 숲체험 등)
관산	독도특강	8.12(수) 10:00~12:00	어린이 및 시민	광복70주년 기념, 독도교육연구소 김유신 소장이 들려주는 독도사랑이야기
	8월 민속잔치	8.22(토) 11:00~17:00	어린이 및 시민	창포비누 만들기, 국악공연 등 전통체험프로그램
	임혁필의 편타지쇼	8.26(수) 18:30~19:30	시민	개그맨 임혁필이 보여주는 신나는 샌드아트의 세계
단원어린이	재미있는 과학르네상스	8.14, 8.18~8.20 (금, 화~목/4회) 10:00~13:00	초등	다양한 과학 이론에 대해 공부한 뒤 실험하기
	나도 건축가 '친환경 다보탑 만들기'	8.18~8.19/2회 (14:00~15:50)	초등	친환경 소재를 이용하여 다보탑 만들기
	주말도서관 책놀이터	8.22(토) 13:00~16:00	초등	석고방향제&메시지 오너먼트 체험
선부	여름방학특강 '키키쿡'	8.11~20 (매주 화, 목/4회) 10:30~11:30	5~7세 유아	엄마와 함께하는 키키쿡 즐거운 요리교실
	저학년 여름독서교실	8.12~21 (매주 화, 목/4회) 15:00~17:00	초등 (저학년)	창의력 쑥쑥 유니클레이가 함께하는 저학년 독서교실
초지 작은도서관	초지작은도서관에 온 엘리스 책 축제	8.18(화)~22(토)	어린이 및 시민	엘리스 탄생 150주년 기념 책 축제(소품 만들기, 영화상영, 윤성근 작가와의 만남 등)

• 상록구 도서관 문화행사

도서관명	프로그램명	기간	대상	주요내용
공공도서관 및 공립작은도서관	고학년 여름독서교실	8.10~8.14 (월~금) 도서관별 상이	초등 (고학년)	'Book To 대장정'을 주제로 도서관별 다양한 독후활동 (독후감 쓰기 및 지도퍼즐 만들기 등)
감골	저학년 여름독서교실 '책 속 세계음식여행'	8.11~8.13 (화~목/3회) 15:00~17:00	초등 (저학년)	책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음식 만들기
성포	'함께 떠나자, 고구려, 백제, 신라'	8.5~8.11 (수~화/5회) 9:00~12:00	초등 2~3학년	삼국시대 한강을 둘러싼 왕들의 이야기와 각 나라들의 전성기 시대 관련 조사

도서관명	프로그램명	기간	대상	주요내용
성포	'함께 떠나자, 고려시대'	8.19~8.21 (수~금/3회) 9:00~12:00	초등 (고학년)	고려시대의 왕의 업적, 거란 침입의 원인과 배경 알기
	아외 곤충 체험수업	8.21(금) 16:00~19:00	초등 가족	우리 동네에서 사는 곤충 찾기
	책공연 '난 토마토 절대로 안 먹어'	8.28(금) 18:30~19:30	어린이, 가족	「난 토마토 절대로 안 먹어」 원작 어린이 공연
상록어린이	'토요일 역사여행'	8.8~10.31 (매주 토) 12:00~14:00	청소년, 일반	시대의 흐름과 특징으로 역사와 함께 의문을 갖고 상상하는 시간 여행
	저학년 여름독서교실 'Book To 대장정'	8.10~8.13 (월~목/4회) 14:00~16:00	초등 (저학년)	전국 필도의 지역적 특성과 특산물 등에 대해 알아보고 글쓰기 및 북아트
	어린이 통합논술	8.17~8.20 (월~목/4회) 10:00~12:00	초등 (저학년)	신문읽기, 독서토론 등을 통해 통합적 사고력 키우기
부곡	재미있는 종이접기 나라	8.17~8.20 (월~목/4회) 15:30~17:30	유아	종이접기로 다양한 소품 만들기
	어린이 참여 놀이극 '오즈를 찾아서'	8.29 (토) 15:00~16:00	어린이, 가족	어린이들을 직접 연극에 참여시켜 주제성과 자신감을 길러주는 공연
	저학년 독서교실 '후끈후끈 지구별'	8.10~8.14 (월~목/4회) 13:30~15:30	초등 (저학년)	위기에 놓인 지구를 구하는 방법과 물품을 재활용하여 만드는 정크아트 운영
본오	오색단청 시계만들기	8.18 (화) 13:00~17:00	6~7세 초등 (저학년)	단청의 옛이야기를 들으며 단청 장식용 시계 만들기
	상상력이 자라는 미술교실	8.11~8.14 (화~금/4회) 13:00~14:40	초등 (저학년)	선정도서를 읽고 다양한 독후활동
본오1동 작은도서관	저학년 독서교실 '여름방학 그림책 향해'	8.10~8.13 (월~목/4회) 15:30~17:30	초등 (저학년)	'나'를 주제로 한 책을 바탕으로 다양한 독후활동
반월햇빛 작은도서관	행복한 비경쟁 토론	8.11~8.14 (화~금/4회) 14:00~15:30	초등 (고학년)	다양한 생각을 교류하고 경청, 질문을 통해 생각 키우기
	손끝놀이 여름이야기	8.18~8.19 (화~수/2회) 10:00~12:00	초등 및 청소년	퀼트를 이용한 필통, 티코스터 만들기

• 문의: 중앙도서관 ☎ 481-3865, 관산도서관 ☎ 481-2751, 단원어린이도서관 ☎ 481-2678, 초지작은도서관 ☎ 402-1095, 감골도서관 ☎ 481-2665, 성포도서관 ☎ 481-2755, 상록어린이도서관 ☎ 481-2671, 부곡도서관 ☎ 481-3602, 본오도서관 ☎ 481-3697, 본오1작은도서관 ☎ 481-3035, 반월햇빛작은도서관 ☎ 481-2663



한 연극, 답사교육이나, 유아유치부를 대상으로 전통문화교육을 해 왔다.

이밖에도 안산의 이야기를 좀 더 쉽고 재밌게 들려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박물관에 방문하면 항상 문화관광해설사가 대기하고 있어, 단체예약과 겹치지 않을 경우 한 명이 방문하더라도 해설을 해주고 있다.

문화관광해설사는 “해설사 설명을 듣고 박물관을 관람하면 안산의 역사를 짚어주기 때문에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박물관에 있는 시간이 더 즐거워 질 것”이라고 말했다. 향토사박물관은 연중무휴다. 단 설날과 추석은 휴무이고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한다.

‘박물관에 옛집을 짓다’ 기획전시도 볼 수 있어요

향토사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는 8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박물관에 옛집을 짓다’ 기획전시가 열린다. 부엌, 사당, 광의 물건을 파트별로 모아 전시하고 사랑방과 안방의 모습도 그림을 붙여 재현해놓았다.

이번 전시는 유치부·초등부의 연계교육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 전시에 앞서 진행된 교육프로그램으로 옛집의 전반적인 이해와 더불어 지역, 기후, 계급에 따른 다양한 가옥의 구조를 살펴보고, 공간별 옛살림에 대한 교육이 진행되었다. 안산의 전통 가옥인 ‘청문당’을 방문하여 직접 옛집을 살펴보고 안방, 사랑방, 부엌, 서고 등을 찾아보고, 스스로 공간을 유추해보는 수업을 진행했다. 그 결과물도 이번 전시장에서 만나 볼 수 있다.

모든 한옥에는 현대의 집에서는 느낄 수 없는 자연과의 조화로운, 낮은 담에서 느껴지는 이웃과의 정, 여름과 겨울을 시원하고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 온돌과 마루에서 나타나는 선조들의 지혜까지 따뜻하고 아름다운 우리 조상들의 지혜와 멋을 느낄 수 있다.

전시 담당자는 “우리의 옛집에서 느낄 수 있는 정감과 아름다움을 담았다. ‘박물관에 옛집을 짓다’에서 따뜻한 옛 감성을 느껴보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안산문화원에서는 어른들을 위한 문화학교 강좌를 실시한다. 경기민요, 풍물놀이, 남도민요, 한국무용, 대금, 단소, 아코디언, 서예, 서양화, 문인화, 민화, 서각, 사진, 한문서당, 일본어, 중국어, POP글씨, 캘리그래피, 통기타, 재봉틀홈패션, 꽃예술, 어린이국악단, 연극반 등 문화강좌를 진행한다.

• 문의 : 안산문화원 ☎ 031-415-0041~2

이선희 명예기자 (iamyou70@hanmail.net)

방학 때 뭐해?

향토사박물관에 가면 안산의 역사와 문화유적, 생활문화 등 안산의 변천 엿볼 수 있어요



물의 수집, 발굴, 안산 전통 민속의 보존과 전승, 지역축제와 문화강좌 등을 통하여 지역문화의 발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1991년부터 시작된 관내 향토유물수집 사업으로 2천여 점에 이르는 유물을 수집하였고, 이를 토대로 원사 내 1층 향토사료관을 2005년도에 개관, 2008년에 제1종 전문 박물관으로 등록하였다.

향토사박물관, 문화관광해설사 설명을 들으면 더 재미있어요

안산향토사박물관은 2005년 향토사료관으로 개관하여, 2008년 안산향토사박물관이란 명칭으로 제1종 전문박물관으로 등록되었다. 안산의 역사와 문화, 민속문화까지 한눈에 볼 수 있는 박물관으로 상설전시, 기획전시, 민속체험마당, 전통초가를 비롯한 야외전시가 마련되어 있다.

상설전시실은 크게 안산의 역사와 문화유적, 생활문화로 나뉜다. 고구려 장항구현



으로 불리던 시절부터 안산이라는 명칭을 얻기까지 안산의 변천을 알 수 있다. 또한 강세황과 김홍도 영인본 작품과 청문당, 안산읍성 등 안산의 문화유적을 재현한 모습을 볼 수 있다.

박물관에서는 이러한 안산의 역사를 알리기 위해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해 왔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설화를 바탕으로

문화관광해설사의 설명으로 쉽고 재미있는 관람 될 것 10월 말까지 ‘기획전시’도 열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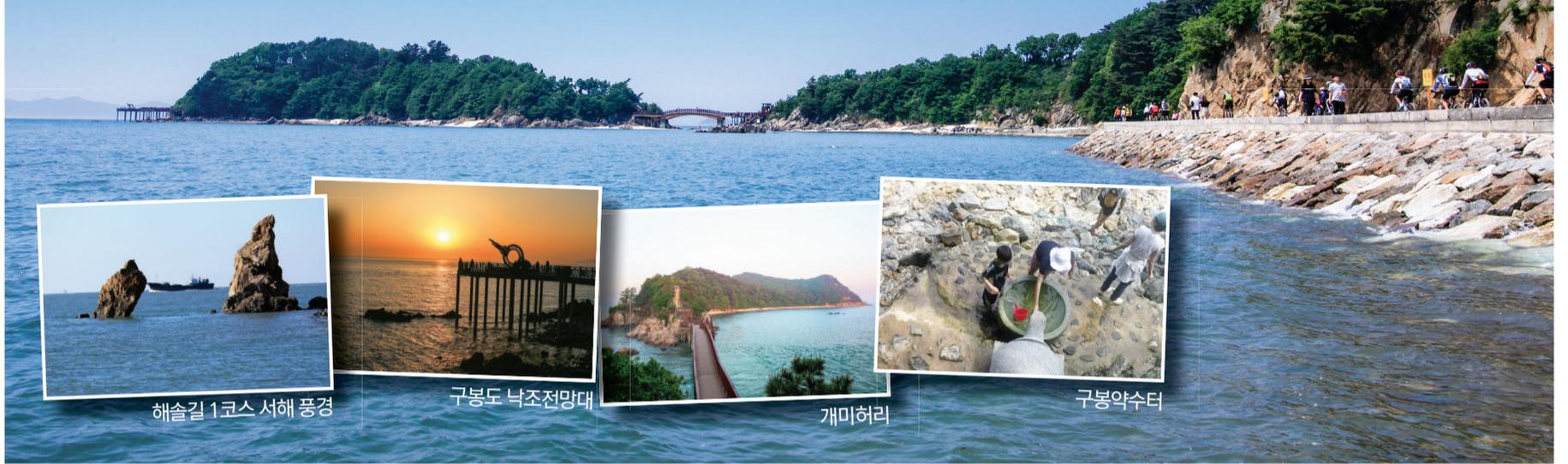
상록구 사동에 위치한 안산문화원(상록구 석호로 144) 입구에 들어서면 벗짚으로 이은 지붕과 흙으로 만든 벽, 나무 기둥, 그리고 마루, 전통 부엌까지 전통 초가를 만날 수 있다. 뒤꼍 장독대에는 장독들이 놓여 있다. 또한 옛날 곡식을 찧는 기구로 사용한 연자방아도 볼 수 있다.

안산문화원은 1984년 창립되어 1층 전시관, 2·3층 문화학교 강의실을 비롯하여 야외 전시장을 갖추고 있다. 문화원은 창립 이래로 안산향토문화의 창달과 계승 발전을 위해 향토사 조사, 연구, 기록사업과 향토유



서해의 아름다운 풍경과 마주하다

해안선 따라 펼쳐진 대부해솔길 1코스



지난 2012년 개통한 대부해솔길은 자연 그대로의 길을 트레킹 코스로 개발해 완만한 산길을 걸으면서 아름다운 서해바다를 조망할 수 있도록 조성되었다.

총 7개 코스 74km로 1코스 개미허리 아치교와 구봉도 낙조전망대, 2코스 대부도 해안가 갯벌, 3코스 아일랜드 CC와 선재대교, 4코스 쪽박섬과 유리섬박물관, 5코스 베르아텔 승마클럽과 동주염전, 6코스 대부광산퇴적암층과 탄도바닷길, 선감어촌체험마을과 누에섬전망대, 7코스 안산어촌 민속박물관과 탄도항, 대송단지 갈대숲, 대부바다향기테마파크까지 코스별로 아름다운 보물섬 대부도의 때 묻지 않은 속살을 구석구석 볼 수 있다. 그 중 해솔길 1코스는 남녀노소 누구나 걷기 편한 길일 뿐 아니라 발길 닿는

곳마다, 눈길 닿는 곳마다 빼어난 풍광이 펼쳐져 해솔길을 걷는 이들의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는다.

구봉공원주차장(단원구 구봉타운길 43)에서 올라가는 길은 해솔길 1코스 중 백미로 꼽히는 곳이다. 산길을 따라 오르다가 구봉약수터와 구봉도 낙조전망대를 가리키는 이정표를 보고 오른쪽으로 방향을 잡는다. 기분 좋은 폭신거림이 있는 흙길을 걷다보면 어느새 울창한 나무사이로 손에 닿을 듯 바다가 눈앞에 펼쳐진다. 산에서 만나는 바다는 그 청량감이 더하다. 바다를 곁에 두고 조금 더 걷다 보이는 계단을 따라 내려가면 바닷가에 있는 구봉 약수터를 만날 수 있다.

약수터에서 물 한 모금 마시고 바다를 바라보면 우측으로 시화방조제와 송도신도시

가 펼쳐지고, 중앙은 영종도, 좌측으로는 영흥도가 보인다. 이곳에서 바닷바람을 느끼며 잠시 다리를 쉬어가거나 만만한 돌맹이를 골라 물수제비 뜨는 실력을 겨루며 동심을 맛보는 것도 좋다. 다시 발길을 돌려 개미허리 아치교를 향해 걷는다. 가벼운 발걸음을 옮기다보니 저 멀리 낙조전망대가 보인다. 낙조전망대 가는 다리는 보수를 끝내 한결 깨끗해진 모습이다.

낙조전망대에서 구조물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고 한참을 머문다. 푸른 바다빛깔과 더 푸른 하늘빛이 어우러진 풍경을 보니 한동안 발길이 떨어지지 않는다.

해솔길 1코스의 또 다른 볼거리인 할아배 바위와 할매바위를 보기 위해서는 바닷가 길을 걸어야 한다. 포장된 도로라 걷는 재미는

다소 떨어지지만 바다를 가까이에서 볼 수 있다는 게 장점이라면 장점일 것이다.

포장된 도로를 걷다 종현어촌마을이 저 멀리 보이는데 웃음소리가 번진다. '당신의 뱃살은 안녕하십니까?'라는 문구와 그 아래 세워진 통나무 사이를 통과하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의 모습은 시도하는 사람도, 보는 사람도 웃음 짓게 한다.

지쳤던 마음이 편안해지는 끝에 배고픔이 밀려온다. 통통한 바지락이 듬뿍 들어가 국물 맛이 일품인 갈국수와 시원한 막걸리 한 사발을 마주하노라니 삶의 고단함 따위는 이미 곁에 없다.

김은미 명예기자 (iami34@hanmail.net)
사진 김진국 명예기자 (hanmarus@naver.com)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15년 후 안산의 미래 모습은?”

‘생태도시’ 주제로 전문가와 시민이 함께한 오픈컨퍼런스

도시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 수 ‘생태도시’를 주제로 진행된 오픈컨퍼런스, 생물다양성 편이 지난 7월 23일 한양대학교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는 전문가를 통해 주제와 관련된 다양한 사례와 정책을 쉽게 소개받고, 참여한 시민들이 함께 토의해 미래세대에게 유익한 실천과제를 도출하는 과정으로 진행됐다.

이날 첫 번째 발표를 맡은 해양환경교육센터 이계숙 대표는 “생물다양성의 정의를 다양한 생물의 종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후와 땅을 포함한 생물 서식처, 유전자의 다양성까지 넓게 봐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안산은 경기도 내 해안선 37%를 차지한 지역으로, 16개의 천연기념물, 21개의 멸종위기종 등이 살고 있는 도시로, 도시농업이란 말이 처음 생긴 지역”이라고 강조했다.

ESP의 이나루 코디네이터는 해외의 성공적인 생물다양성 모범사례를 소개했다. 특히 관심을 끈 것은 수자원공사에서 식



수공급과 사구 생태계보호를 동시에 하는 네덜란드의 사례와 도시농업으로 청년 일자리를 성공적으로 창출한 캐나다 몬트리올의 'lufa fams' 사례였다. lufa fams는 물을 재활용하고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으며, 픽업지점에서 한꺼번에 장바구니를 배송해 고객이 찾아가는 시스템을 도입한 것으로 주목받았다.

이어 상상확장 활동으로 테이블별로 안산의 생물다양성과 관련된 질문에 답하는 방식으로 의견을 나눴다. 참가자들은 안산에서 생물 서식처로 가장 중요한 장



소로 20개의 산과 15개의 습지 및 해양서식처를 꼽았고, 생물다양성 교육을 위해 가장 중요한 장소로 12명이 노적봉, 10명이 갈대습지 등을 언급했다. 안산시에서 반드시 지키고 싶은 생물로는 저어새와 노랑부리백로, 금개구리, 풍도바람꽃 등이 나왔다.

이후 소설픽션 방식으로 15년 후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안산시의 미래를 자유롭게 상상하고, 이것이 현실화 됐을 때의 기대효과, 변화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 비전 실현을 위해 해야 할 일들을 찾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테이블별로 나온 다양한 미래 비전 상상으로 시화호를 와덴해 갯벌처럼 만들자는 의견, 녹시울(보이는 녹지)이 50% 이상인 도시, 물이 흐르는 도시, 한 가구 한 텃밭을 실현할 수 있는 도시, 숲과 마을공동체가 공존하는 도시 등의 아이디어가 나왔다. 이런 상상의 기대사항으로 도시의 열섬현상이 사라지고, 비염환자의 비율이 줄고, 청소년들의 생태감수성이 높아져 스트레스가 줄게 되는 변화들을 표현했으며, 실천사항으로 숲해설사 양성을 확대하고, 생물다양성 조례를 제정하며, 생물 모니터링을 자주 하자는 의견들이 나왔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생태안내자 최은영 씨는 “석호초에서 생태안내자 교육을 받은 엄마들과 행사에 참여했는데, 오랫동안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며 평소에는 듣지 못했던 회원들의 생각들을 들을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다.”고 소감을 전했다.

송보림 명예기자 (treehelper@naver.com)

안산은 지금 풍미작렬(風味炸裂)

미식가의 예찬, 뚝배기에 담긴 정(情) 대부맛집 청미



“향토음식으로 내 집을 찾는 손님에게 고향의 정취를 선물하고파”



‘대부맛집 청미’ 김복선 대표

대부도 방아머리에서 영흥도로 향하는 길목에 파란 하늘을 배경삼아 붉은 황토집이 ‘대부맛집’이라는 간판과 함께 관광객들의 시선을 끈다.

“건물 보고 왔다가 맛을 보고 단골이 되는 손님이 많아요.”

황토 흙벽에 시골집 대문처럼 양쪽으로 활짝 열어젖힌 문에는 보라색 현판이 햇빛을 받아 반짝인다. ‘2014 전국 테마음식 경연대회’에서 동상을 수상한 ‘대부맛집 청미’. 안산시에서 인증하는 ‘인기맛집’이라는 표식은 네온사인처럼 손님들의 발길을 잡는다.

안으로 들어서자 거대한 원목 기둥이 나무처럼 가지를 뻗어 지붕을 받치고 있다. 대부도를 찾는 관광객에게 예쁘고 아기자기한 이미지로 기억되고 싶어 직접 인테리어에 참여했다는 김복선 사장(51세)은 음식의 맛에 더욱 신경을 쓴다.

‘대부도하면 칼국수가 생각나듯 식당의 외양도, 식단도 획일화되어 있는 점에 착안해 자신만의 특화된 메뉴를 신중하게 찾았다고 했다.

“바지락과 향토음식을 접목해 바지락 고추장뚝배기, 간장계장, 영양굴밥을 대표 메뉴로 10년간 식당을 운영했어요. 줄서서 먹는 집은 아니지만 찾아오는 매니아들이 꽤 있어요. 주말보다 평일 손님이 더 많구요. 각박한 도시에서 치열하게 사는 도시인들이 고향을 찾듯 내 집을 찾아오는 손님들 대접하는 마음으로 자극적이지 않고 짜지 않게 음식을 만들고 있습니다.”

대부도가 고향인 사장님은 친정어머니가 농사지는 농산물을 식재료로 쓴다. 남편과 함께 직접 버섯을 재배하고, 꽃게는 탄도와 방아머리항에서, 영양굴밥에 들어가는 굴은 365일 통영 생굴을 사용한다.

야채와 고추장, 신선한 바지락을 넣고 강된장처럼 자작하게 끓여낸 고추장뚝배기를 갖 지은 돌솥밥에 비벼 먹다보면 눈 깜짝할 새 밥 한 그릇이 비워진다. 공기밥 추가는 기본이다. 바지락 고추장찌개는 육수에 생새우, 호박, 버섯 등 채소를 넣고 한소끔 끓이다 마지막에 바지락을 넣어 끓여가면서 먹는다. 생새우가 들어간 고추장찌개는 국물이 시원하다. 찌개에 낙지를 넣으면 건강보양식이 따로 없다.

대부도에 자주 들른다는 장병옥 씨(일동)는 “대부도에서 가장 맛있는 밥을 먹었습니다. 다음에는 마누라와 같이 와야겠어요. 이 식당만의 대부향토음식을 맛보여주고 싶어요.”고 했다.

김 사장은 “지금 이곳은 제가 어렸을 때 좁은 오솔길처럼 구불구불 소나무길이나 있었어요. 섬이 시화방조제로 연결되고 관광객이 많아지면서 추억은 사라졌지만

대부도가 좋아진다는 사실이 반가워요. 어제까지 안산시에서 주관하는 교육에 다녀왔는데, 대부도 방아머리 음식거리를 활성화하기 위해 대부도 대표 향토음식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게 되었다.”며 갯벌에서 갓 건져 올린 바지락과 채소를 넣어 된장으로 간을 맞춘 비빔밥 등 선조들의 애환이 깊게 밴 ‘어부밥상’에 초점을 맞춰 새로운 메뉴를 개발해야겠다는 목표가 생겼다고 했다.



• 문의 : 대부맛집 청미 ☎ 032-887-1108
• 주소 : 단원구 대선로 36 (대부북동 1826-156)

신선영 명예기자 <woghkah@hanmail.net>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추천하는

과일·채소



○ 포도의 효능

- **골다공증 예방 효과** : 칼슘의 흡수를 도와주는 비타민C가 많이 함유되어 있어 골다공증 예방에 좋습니다.
- **암 예방 효과** : 정상세포가 암세포가 되는 것을 막아주는 레스베라트롤이 포도껍질에 많이 함유되어 있어 암 예방효과가 있습니다.
- **피로회복 효과** : 과당과 유기산이 함유돼 있어 피로회복 효과가 있습니다.

○ 맛있는 포도 고르는 법

- 색이 진하고 알이 고른 포도가 맛있는 포도입니다.
- 포도 표면의 하얀 가루는 당분이 새어나와 굳은 것으로 하얀 가루가 많은 것이 달콤한 포도입니다.
- 포도는 송이 끝의 것이 가장 시므로 송이 끝의 포도를 먹어봐서 달면 맛있는 포도입니다.

○ 씻어도 씻어도 찝찝한 포도 깨끗하게 씻는 법

1. 포도알갱이를 다 떼어주세요.
2. 베이킹소다를 포도에 골고루 뿌려주세요..
3. 5~10분정도 후에 충분히 헹구면 농약 걱정 없는 깨끗한 포도를 드실 수 있습니다.

○ 포도 신선하게 보관 하는 법

1. 종이에 싸여있는 포도를 신문지로 한 번 더 감싸주세요.
2. 2ℓ 페트병의 윗부분을 자른 후 포도 줄기가 위로 가게 하여 페트병에 넣어주세요. (포도가 매달려 있는 모양을 생각하며 넣으면 됩니다.)
3. 페트병 채로 냉장고에 넣어 보관하면 오랫동안 신선한 포도를 드실 수 있습니다.



안산M밸리록페스티벌, 화려한 축제의 막을 내리다

톱 헤드라이너·지역상생·인디 저변 확대... 8만5천여 관객 다녀가

2년 만에 다시 열린 안산M밸리록페스티벌(이하 밸리록페)이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24일 첫날 2만 명을 시작으로 25일 3만2천 명, 26일에는 3만3천 명이 운집하며 총 8만5천여 명의 관객들이 밸리록페 공연장을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다. 장마와 태풍이 겹치는 악천후 속에서도 관객 수는 2013년 페스티벌보다 7천여 명이 늘었다.

밸리록페 측은 글로벌 탑 헤드라이너들의 성공적인 섭외, 안산시와의 지역상생, 인디 음악 발전과 저변 확대 등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했다. 밸리록페는 그동안 국내를 찾지 않았던 글로벌 탑 아티스트들을 지속 섭외해 전설적인 록밴드 오아시스, 라디오헤드를 비롯해 올해 푸 파이터스와 모터헤드가 한국에 처음 방문했다. 또한 노엘 갤러거와 케미컬 브라더스, 푸 파이터스의 헤드라이너는 물론 모터헤드, 데드마우스, 투엔티 원 파이즈, 루디멘탈 등 핫한 아티스트들이 대

거 서브헤드라이너로 이름을 올려 음악팬들의 구미를 당겼다. 여기에 이디오테이, 장기하와 얼굴들, 국카스텐, 페퍼톤스, 갤럭시 익스프레스 등의 국내 라인업 또한 알차게 구성됐다는 평이다.

7월 24일, 첫날은 라이드와 데드마우스, 노엘 갤러거, 장기하와 얼굴들은 능청스러운 무대매너로 시종일관 관객들을 들었다 놓으며 페스티벌의 분위기를 띄웠다. 국카스텐은 특유의 카리스마와 몽환적 리듬을 넘나들었고, 장기하와 얼굴들은 "좋다말았네", "우리 지금 만나" 등 귀에 익은 멜로디와 가사로 관객의 열띤 호응을 얻었다.

캠핑의자에 앉아 한껏 몸을 젖힌 커플, 옷통을 벗어던진 청년들, 국수를 손에 들고 젓가락질을 하면서도 어깨를 들썩이며 음악에 몸을 맡기는 록 팬들은 한껏 자유로웠다. 한국을 자주 찾는 노엘 갤러거가 'Don't Look Back In Anger'를 부르자 관객들은 떼창을

부르며 장관을 연출했다.

정준영 팬카페 회원 최경애 씨(인천)는 "평소 자유분방한 정준영 밴드의 열정적인 무대를 가까이에서 보고 싶어 몇몇 회원들과 함께 왔어요. 지산리조트에서 할 때도 가봤는데, 그곳보다 넓고 경치도 좋네요. 많이 걷는 게 불편하지만 팬심으로 감수하겠죠."며 걸음을 재촉했다.

밸리록페 이틀째인 25일은 상당히 다채로운 라인업을 보여준 날이었다.

로큰롤라디오나 갤럭시 익스프레스와 같은 밴드를 비롯해 빌리어코스티 같은 모던록 뮤지션, 팝스러운 사운드의 장범준, 힙합 뮤지션 다이나믹 듀오, 일렉트로닉 뮤지션인 이디오테이와 케미컬 브라더스까지 다양한 장르의 음악들을 선보였다.

루디멘탈과 솔탄오브디스코, 갤럭시 익스프레스 등과 깜짝 콜라보레이션 무대를 꾸민 이디오테이는 현란한 믹싱과 연주로, 헤드라이너인 케미컬 브라더스와 견주어도 뒤지지 않을 완성도 높은 무대를 만들었다.

케미컬 브라더스 역시 전매특허인 화려한 조명연출과 비디오프로 잠시도 눈을 땄수

없는 무대를 만들어냈다. 케미컬 브라더스가 공수해온 가로 16.8m, 세로 9.6m에 달하는 하이브리드 대형 LED와 최신 레이저 조명 등은 약 30t에 달하며 이는 국내 페스티벌 사상 최대치로 기록됐다.

케미컬 브라더스는 4만 평 페스티벌 전용 부지의 모든 불이 암전된 가운데 하늘에 우주를 그리는 듯한 시각적 효과로 음악의 메시지와 분위기를 한층 끌어올렸다. 영상과 빅비트에 3만2천여 관객들은 90분 동안 전 자음악에 몸을 맡겼다.

아폴로18의 무대에서는 페스티벌을 즐기는 관객 2천 명이 써클핏(록페스티벌에서 관객들이 원을 그리며 기차놀이를 하는 것)을 만들어냈다. 아폴로18은 초대형 인간원이 만들어지는 광경에 감격하며 관객들이 써클핏을 지속할 수 있도록 마지막 곡 '패스터텐라이츠'를 오랫동안 이어갔다.

26일 마지막 날은 '탈진 라인업'이 이어졌다. 무한도전 가요제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혁오, 현재 일본에서 가장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원 오크 록', 40년 만에 한국을 찾은 헤비메탈의 전설 '모터 헤드', 록의 왕좌에서 부상 투혼을 펼친 '푸 파이터스'까지 하루 종일 록스파티가 끊이지 않았다.

친구와 함께 텐트에서 야영을 하던 김민정 학생(20세, 한양대 1학년)은 "안산 출신 보컬이 있는 국카스텐 팬이요. 용돈을 모아 예약판매 할 때 3일권 티켓을 싸게 구매했어요. 혹시나 했는데 역시 라인업에 국카스텐이 올라와 있어 다행이었다."며 "하루 한 끼만 먹으며 버티고 있는데, 노엘 갤러거 등 세계의 유명한 아티스트들을 만난 것만으로도 기쁘고 즐거워요. 라인업 끝내줍니다."라고 했다.

거센 빗줄기에도 3일간 쉴 틈 없는 록의 향연이 펼쳐졌고, 마지막 날에는 푸른 하늘이 바다향기테마파크 갈대숲에 지평선을 만들며 돌아가는 록 팬들을 배웅했다.

신선영 명예기자(woghkah@hanmail.net)
사인 김진국 명예기자(hanmarus@naver.com)

좌도우서-단원을 그리며(Missing or painting for Danwon)展



인연 (신경숙)



The Gray City (황인규)

8월 16일까지 단원미술관에서 열려

오는 8월 11일부터 8월 16일까지 단원미술관 제2관에서 '좌도우서 - 단원을 그리며' 전시가 열린다. 좌도우서 회원전은 올해로 5회째를 맞는다. 안산 화가들을 주축으로 해서 과거부터 이어져온 전통의 것을 자랑스럽게 받아들이며 김홍도 선생의 뜻을 이어가자는 취지에서 좌도우서회 라는 모임을 결성하게 되었다.

좌도우서회 회원들은 교단에 있으면서 작업을 하거나 전시회를 10회 이상 활발히 한 현직 화가들의 모임이다. 각자 작품 활동을 하면서 전시회 때 작품을 모아 전시를 한다. 회원은 총 50여 명으로 이번 전시에 참여한 작가는 30여 명이다.

'좌도우서' 이름은 김홍도의 좌도우서에 관한 유명한 기록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단원의 좌도우서 정신을 계승한 작가들이 모였다. 단원의 도시 안산에서 활동하고,

그의 정신을 이어받고자 한 작가들이 예술의 새로운 시도와 다양한 실험을 통하여 작품을 발표한다. 이는 전통 한국화만을 계승함이 아니다. 단원이 그러했듯이 무릇 서양의 그것조차도 폭넓게 포용하고 자신의 작품에 접목할 수 있는 여러 분야의 예술을 뜻한다.

힘차고 발랄한 필치로 현재의 사회상을 그려낸 풍속화, 먹을 이용하여 운동감과 울동감을 힘있게 표현하는 묵 추상화, 글자를 개념화하여 추상화시킨 글자 추상화, 한국화의

여백미를 차용한 유화, 한국인의 정서를 고스란히 드러낸 공예와 조각, 매난국죽에 국한되어있던 문인화들에 새로운 소재들을 접목시킨 신 문인화 등 새로운 시도와 다양한 실험들은 계속 변화하며 발전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관계자가 전했다.

'단원을 그리며'라는 부제를 붙인 것은 단원의 정신을 이어가고 단원처럼 획기적인 시도와 실험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술의 정신을 높이 고취시키겠다는 작가들의 의지를 나타낸다. 또한 우리나라 미술 화단에 단원과 같은 진취적인 소양을 가진 작가들이 활발히 활동했으면 하는 바람을 담았다고 한다.

전시 관계자는 "그 옛날 우리네 어머니들이 어두컴컴한 호롱불을 벗 삼아 밤새 기워 만드신 조각보가 생활 속에서 아주 유용하게 사용되었듯, 그리고 복(福)을 써서 가져다 주었다고 믿었듯, 우리의 1년간의 열정과 바람으로 만들어진 이 전시가 관람객의 마음에 깊은 감동으로 남아지길, 큰 복을 가져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선희 명예기자(iamyu70@hanmail.net)

대부도 종이미술관서 '2015 안산종이문화축제' 연다

제11회 한국종이공예공모대전 수상작 전시... 한지 탁본 등 체험행사 풍성



7월 24일 개막한 '2015 안산종이문화축제(이하 종이문화축제)'가 8월 30일까지 대부도 종이미술관에서 관람객을 맞는다.

종이문화축제는 매년 종이공예 작품을 선보이며 공예와 예술, 학습 등 온 가족이 함께 관람할 수 있는 즐거운 축제이자 종이 공예인들에게는 정보를 공유하는 소중한 만남의 장이다. (사)전통공예문화협회가 주최하고, 안산시가 후원하는 종이문화축제는 8월 30일까지 총 35일간 종이미술관1·2관과 야외 전시장에서 펼쳐진다. 제11회 한국종이공예공모대전 수상작을 비롯해 양상훈 한지작가의 작품과 국민대학교 이용배 교수의 조형작품을 만나볼 수 있다.

미술관 측은 축제 개막을 기념해 7월 24일 하루만 무료 관람을 진행했다.

어린이이부터 노년까지의 일생을 표현한

〈살어리랏다〉라는 작품을 감상하던 이애돌 씨(75세)는 “대부도에 사는 형님, 조카, 조카며느리와 함께 왔는데 멋진 종이예술 작품을 보니 정말 좋네요. 한지는 푸근한 고향의 느낌이 납니다. 내 고향 대부도에 이런 훌륭한 종이미술관이 생겨 얼마나 자랑스러우지 몰라요.”라며 어깨를 으쓱했다. 그 옆에서 조카며느리는 “고모님은 파독 간호사로 18년간 독일에서 살다 오셨어요. 종이예술의 아름다움을 전파하는 전도사가 다 되셨어요. 독일에 있는 자녀와 지인들에게 한지작품을 선물하고, 서울에서 친구들이 찾아오면 그때마다 종이미술관을 찾는다.”고 했다.

미술관 외부에 조성된 한옥 마당에서는 1박2일 캠프 차 종이미술관을 방문한 안산지구촌합창단 단원 36명이 극단 '문'의 〈망태 할아버지 무서워〉라는 공연을 관람하고 있

었다. 아이들은 대청마루에 앉아 종이접 인형들이 들려주는 커다란 상상의 세계 속으로 빠져들었고, 정민아 지휘자는 “다문화 가정 아이들에게 우리나라의 종이미술과 대부도의 아름다운 풍경을 보여주고, 한옥의 아름다움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일정을 잡았습니다. 비가 와서 트레킹은 취소해야할 것 같지만 종이로 만들어진 작품을 보고 종이공예체험을 하며 무척 신기해했고, 예기치 않은 공연도 보며 방학을 맞은 단원들에게 풍성한 추억거리를 만들어주게 되어 기쁩니다.”라고 했다.

이날 오후 3시에는 안산시·안산시의회·예시랑공예문화원·전통공예문화협회·한국창작종이문화원·안산학연구원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해 축하 인사를 했으며, 심사평과 함께 시상식이 이어졌다.

송담대학교 정창호 교수는 “작년에 비해 응모작품 수가 줄었으나 그 수준은 대단히 높다. 입상작들은 기술적인 면에서는 수준이 높으나 전통을 답습하는 등 개성이 없는 점이 아쉽다.”며 “앞으로는 시대가 요구하는 트렌드 요소를 담아 독창적인 작품을 볼 수 있기를 바란다.”고 심사평을 했다.

올해 대상은 선정하지 않았으며, 금상은 이세령 〈부부〉, 정미숙 〈황혼〉이 선정됐다.

수상작은 제1전시관(2층)과 제2전시관(지하 1층)에 전시한다. 제2전시관 입구에는 달리 등 돈으로 접은 개, 돼지, 거북이, 새, 뱀, 곤충들이 아이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제2전시관에는 한지로 표현한 시민참여 캐릭터 작품과 김도영 작가의 종이로봇이 전시되어 있어 어린이 전용 전시관으로서의 특색을 살리는 전시를 마련했다.

2014년 12월에 개관한 종이미술관은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제1전시관, 제2전시관, 체험교육장, 아트숍으로 구성돼 있으며, 야외에는 조각공원과 활쏘기, 투호놀이 등을 즐길 수 있는 전통놀이체험장과 한옥체험관이 있다.

관람료는 성인 5천 원, 소인(만3세~8세) 4천 원, 유아(3세 미만)는 무료이며 체험비는 별도다.

·문의 : 안산종이문화축제 사무국 (☎ 031-403-4540) 종이미술관 (☎ 032-887-0606, 2055)

신선영 명예기자(woghkah@hanmail.net) 사진 김진국 명예기자(hanmarus@naver.com)

정문규미술관, '단원 김홍도 영인본 특별展' 열어

정문규미술관은 오는 9월 6일까지 '단원 김홍도 영인본 특별전'을 열고 안산M밸리룩 페스티벌과 여름휴가를 즐기기 위해 대부도를 찾는 관광객에게 단원의 도시, 안산을 알리고자 한다.

정문규미술관은 진본이 아닌 영인본 판의 전시지만 김홍도필 풍속도 화첩(金弘道筆 風俗圖 畫冊)의 〈씨름〉, 〈대장간〉, 〈서당〉 등 가로 22.4×세로 26.6cm의 풍속화 외에 그동안 작품의 크기가 거대해 단원미술관에서도 전시할 수 없었던 〈삼공불환도(418×134)〉나 〈군선도(576×133)〉와 같은 대작들 위주로 40여 점의 작품을 전시한다.

지난 7월 22일부터 전시를 시작해 24일에는 안산시 관계자, 시 의원, 문화예술인, 관람객 등 50여 명과 함께 오프닝 행사를 가졌다.

내빈들은 “오랜 가뭄 뒤에 단비가 촉촉이 내리는 날, 정문규미술관에서 여는 특별전시에 참석하니 예술의 갈증이 사라지는 듯하다.”며 전시회를 반겼다.

축사에 이어 홍용선 동양화가가는 표암 강세황과 단원 김홍도에 대해 소개했으며, 소

9월 6일까지, 대부도 보물섬 만들기 예술기관연계 프로젝트



프라노 윤경미 교수와 바리톤 장베드로 씨가 축가를 불렀다. 구노의 오페라 '파우스트' 중 〈보석의 노래〉, 팔보의 가곡 〈그대에게 내 말 전해주소〉를 부른 두 성악가는 레하르의 '명량한 과부' 중 〈그대 입술은 침묵하고〉를 이중창으로 들려주었다.

소나무가 사라지자 용이 나타나고 용이 승천하면서 다시 소나무로 변하는 디지털 작품 〈송하선인취생도〉을 보며 이보미 씨(26세, 대전시 태평동)는 “안산이 김홍도의 고향

인 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오래된 작품을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표현해 놀랍고 생동감 있네요. 영상이 그림을 만나 또 다른 작품으로 표현된다는 것이 신기하다.”고 했다.

이에 남송미술관 남궁원 관장은 “김홍도의 작품 속 숨은 뜻을 영상과 음악을 가미해 미디어아트로 표현한 작품입니다. 당시 왕을 직접 그림 속에 표현할 수 없어 김홍도는 소나무 껍질을 용의 비늘처럼, 나뭇가지를 용의 머리처럼 표현해서 '임금의 다스림 아래

태평한 세상을 기원하는 내용을 그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구니 스님이 〈선선도〉와 〈남해관음도〉 앞에서 울동감이 넘치는 필선을 유심히 들여다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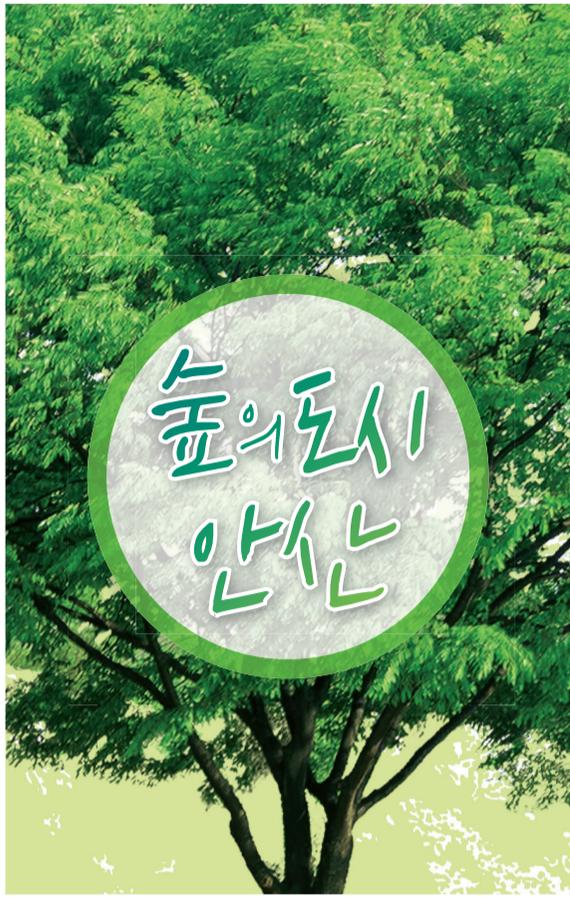
김홍도는 50대 후반 이후 선선도의 제작이 줄어들고 소품의 석화(釋畵, 부처를 그린 그림)를 즐겨 제작하게 된다. 대개 불교회화에서 수월관음도는 관음보살 앞에 선재동자가 없으려 있는 모습으로 그리지만, 김홍도는 〈남해관음도〉에서 관음보살과 선재동자를 어머니와 어린 아들처럼 친근하게 표현했다.

축가를 부른 윤경희 백제예술대 교수는 “갤러리에서 여는 음악회에 참여해보니 신선하다. 유학시절 미국에서나 볼 수 있었던 도서관음악회, 하우스콘서트가 서울도 아닌 안산에서 열리고 있다니 놀랍다. '안산'이라는 도시를 다시 보게 됐다.”고 말했다.

전시기간인 8월 1일은 KBS교향악단 수석 팀파니스트 이영완이 이끌고 있는 '201 Art 타악기 오케스트라'의 연주회가 열렸고, 100여 명 관객들의 환호를 받았다. 8월 15일에는 하프, 첼로, 플룻 트리오 콘서트인 'Trio ROSES', 8월 29일에는 첼로 독주회를 연다. 안산시와 안산문화재단의 후원으로 진행되는 이번 전시와 음악회는 모두 무료다.

·문의 : 정문규미술관 (☎ 032-881-2753)

신선영 명예기자(woghkah@hanmail.net) 사진 김진국 명예기자(hanmarus@naver.com)



어른들의 쉼터, 어린이들의 놀이터 '둔배미공원' 이야기

둔배미공원(단원구 초지동 723-1번지, 44,500㎡)에 들어서니 코끝에 솔향기가 머문다. 초지중학교 정문 쪽에서 들어가는 입구 양 옆으로 소나무 숲에서 어르신들이 빙 둘러앉아 이야기꽃을 피운다. 솔향기 맡으며 더위도 피하고 정담게 대화하는 모습에 삶의 여유가 느껴진다.

둔배미공원은 2004년 조성된 공원으로 주공아파트 11~13단지, 둔배미마을 주택단지로 둘러싸여 있다. 인근에 초지초등학교와 초지중학교가 있다. 둔배미공원을 통해 학교를 오가는 학생들이 많다. 매일 공원을 드나들면서 사시각각 변하는 자연을 느끼고 삶을 키워간다. 아침과 저녁의 공원을, 봄과 여름의 공원을 느끼며 학생들의 삶도 더욱 풍성해질 것이다.

방학을 맞아 더욱 신난 아이들은 공원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 뜨거운 햇빛도 아랑곳 없이 자전거를 타거나 놀이터와 운동기구 앞에서 모두 신이 나있다. 그늘 벤치에 앉아 손자 재롱을 보는 할아버지와 할머니도 여유로운 풍경이다. 공원을 빙 둘러 소나무가 군락을 이루고 있어 더욱 안락한 곳이 둔배미공원이다.

둔배미공원에는 많은 체육시설이 설치돼

있다. 농구대, 풋살구장, 게이트볼장, 자전거나 보드를 탈 수 있는 트랙까지 갖췄다. 운동기구와 야외무대와 발 지압길, 벤치 등 각종 편의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월, 수, 금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야간운동교실이 열린다. 또한 자전거 강습을 받을 수 있는 자전거사랑 전국연합회 안산지부가 있다.

S보드를 즐기던 이민정(초지초 6학년) 학생은 “주말마다 보드를 즐기러 나와요. 트랙을 따라 즐길 수 있어 신나요.”라고 말한다. S보드가 뭐냐는 질문에 직접 시범을 보이며 “보드가 꺾여 휘어지는데 S자처럼 움직여서 S보드라고 해요. 공원이 넓어 마음껏 뛰어놀 수 있어 좋아요.”라며 보드를 탔다.

그늘이 드리워진 공원에 앉아 지인과 바느질을 하던 공설희 씨는 “무엇보다 집 가까이에 공원이 있어 좋아요. 아파트 단지에서는 축구할 장소가 없는데 풋살구장이 생겼어요. 아이들이 집에서는 뛰지 못하는데 여기에서 공을 차고 마음껏 뛰어노니 즐거워해요.”라며 둔배미공원의 자랑을 늘어놓았다. 같이 나온 딸은 “풍경이 멋있고요, 자연에서 뛰놀 수 있어 좋아요. 운동기구나 그네 같은 놀이시설이 있어 더욱 좋아요.”라며 어른스럽게 답한다. 아나운서가 꿈이라는 여학생의 모습이



맑고 푸르른 공원을 담아있다.

풋살구장에서는 청년들이 함성소리가 들린다. 풋살구장은 시민 누구나 이용이 가능한 공공시설로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둔배미공원 이름은 둔배미 마을에서 유래되었다. 둔배미는 큰백중 동북쪽에 위치해 있던 마을로 조선시대에는 원당리(元堂里)라고 칭했다. 이곳은 군사상 요충이여서 둔전(屯田, 군량 또는 관아의 비을을 조달하기 위해 국가가 지급한 토지)과 둔전병(屯田兵, 군사상 중요지이거나 또는 군대들이 오래 머무는 곳에서 농사를 짓는 병졸)이 있었으므로

씨·연일 정씨·천안 전씨 등이 대대로 살아온 마을로, 서쪽지역을 양지쪽, 동쪽지역을 웅달쪽이라 하였다. 폐동 때(1977년)에는 80여 호의 대촌(大村)이었다. 신도시 개발로 반월공업단지로 조성되어 현재는 택지로 조성되어 있다. 1989년 9월 9일 제6회 경기도 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 주민들(주로 어민)이 만선 취향을 기원하며 놀던 안산둔배미놀이를 재현하여 종합우수상을 수상하였다.

둔배미공원에 배드민턴장, 배구장 샤워실 등을 갖춘 체육관이 들어설 계획이다. 고잔신도시권역 내 부족한 실내체육시설을 확충하여 시민의 여가선용을 높이고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한다. 주민숙원사업인 생활체육관 건립 시 공원 내 녹지공간을 축소하지 않고 다양한 계층이 만족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관계자가 전했다.

집 앞을 나서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원이 있는 안산. 지역 주민의 쉼터요, 아이들의 놀이터인 공원에 여름이 무르익어가고 있다.

·참고문헌 : 안산시사(둔배미 유래)

이선희 명예기자 (iamyou70@hanmail.net)
사진 김진국 명예기자 (hanmarus@naver.com)



둔배미는 밀양 박

호수공원 무궁화동산... 나라꽃 무궁화 아름다움과 의미 전하는 체험의 장



호수공원 야외수영장 남쪽에 면적이 6만 6,000㎡에 달하는 무궁화동산이 있다. 이곳은 2007년 3월 '시민이 가꾸어가는 무궁화동산'이라는 테마로 한국가스공사 경인지사 봉사동아리 '한다솜' 회원들과 안산시 자원봉사센터, 안산시민이 연대해 200여 종 7백 그루의 무궁화를 심으면서 조성됐다.

무궁화동산은 아늑한 언덕으로 이뤄졌다. 언덕 중앙의 데크가 깔린 계단을 오르면 오른쪽으로 드넓은 호수공원 전경이 눈에 들어오고 올라온 계단을 뒤돌아 서서 보면 건축 중인 아파트 레이크 타운이 산맥처럼 허공에 솟아 있는 게 보인다. 동산 정상에는 무궁화 꽃 사이로 통일을 염원하며 쌓아 올린 돌탑들이 있다. 무궁화동산을 가꿔온 안산시민연대가 매년 열어온 무궁화축제에서 쌓인 탑이다. 동산 이곳저곳에는 벤치가 운치 있게 놓여있다. 구부러진 길 한쪽에는 정

자가 있어 그늘을 만들어 낸다. 한낮의 찌는 더위가 한 풀 꺾인 저녁 무렵 연인인 듯한 남녀 한 쌍이 한적한 벤치에서 망중한을 즐긴다. 이름 모를 새들은 지저귀고 잠자리들은 맴을 돈다.

동산 아래부터 경사면, 정상까지, 정성을 들여 가꾼 무궁화가 저마다 단아한 자태를 보여준다. 무궁화 꽃은 재래종, 외래종 합쳐 종류가 250종에 이른다. 이곳 무궁화동산에는 현재 230여 종 1,500그루의 무궁화나무가 있어 6월부터 10월까지 다채로운 무궁화 꽃을 아름답게 피워낸다. 배달계, 아사달계, 백단심계, 홍단심계, 청단심계, 이름조차도 자긍심을 느끼게 해주는 나라꽃이다. 무궁화동산에 오면 한 나무에 130종의 꽃을 피우는 별난 무궁화나무와 수령 70년이 넘는 초대형 무궁화까지 다양한 무궁화 꽃을 볼 수 있다. '선녀, 소월, 사임당, 백조, 백설, 눈보라, 배달, 평화, 아사달, 화랑,

화합, 한마음, 한보람, 일편단심, 순정, 아리랑, 설단심, 한사랑, 통일, 충무, 영광, 삼천리, 늘사랑, 내사랑, 고주몽, 파랑새, 첫사랑, 동해' 등 이름처럼 선녀 같고 백설 같은, 사랑과 화합과 평화를 염원하는 무궁화 꽃이 핀다. 이렇게 다양한 무궁화를 접하고 공원의 무궁화 꽃 안내 표지판의 꽃 이름 '아사달, 화랑, 아리랑, 삼천리...'를 하나씩 속으로 읽어본다.

무궁화는 피고지고 또 피어 무궁하다. 단일 꽃으로는 놀라울 정도로 종류가 많고, 자태 또한 기품이 있고 아름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 중 많은 수의 사람이 무궁화 꽃은 나라꽃일 뿐 호불호를 떠나 아름답다고 말할 수 있는 꽃은 아니라고 여긴다. 이것은 일제강점기 일본이 민족말살정책을 펴면서 우리나라꽃 무궁화를 교묘하게 왜곡시킨 결과이다. 일제는 무궁화는 거름을 줘서는 안 된다고 가르쳤고 심는 장소도 통풍이 안

되는 집 뒤편이나 후미진 곳으로 한정해 무궁화 꽃을 작고 불품없는 꽃이 되게 했다.

올해는 광복이 된지 70주년이 되는 해이지만 우리가 나라꽃 무궁화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나라꽃으로서 대접 또한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은 현실을 보면 아직도 일본이 조장한 왜곡된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호수공원 무궁화동산에서는 매년 8월15일 광복절 전후로 '무궁화그리기대회', '썬꽃이 포트묘 나눔 행사', '무궁화 사진 전시' 등 무궁화에 대해 바르게 알리기 위한 '무궁화 축제'가 열린다. 무궁화동산을 손으로 가꿔온 안산시민이 '무궁화연대'로 뭉쳐 축제를 개최한다. 이곳 무궁화동산이 무궁화의 아름다움과 의미를 느끼고 우리 민족과 역사를 함께해온 무궁화의 의미를 되새기는 장이 되길 기대해본다.

백미란 명예기자 <whity0218@naver.com>



“안산시의 도시숲은 안산시민에게 맑은 하늘과 청정한 공기를,
심리적 치유와 보다 나은 삶을 선물합니다.”

자연공존의 숲

시민들이 다양한 생명이 공존하는 자연을 느끼고 배울 수 있는 생명의 숲

녹색가로외의 숲

맑은 하늘과 청정한 공기, 자연과 도심 연결하는 가로녹지 숲

해안휴양의 숲

섬의 다양한 생물들이 가득한 갯벌 및 해안산과 어우러지는 아름다운 해안생태 숲

치유의 숲

시민의 스트레스저감과 심리적 안정감을 위한 휴양의 숲

공동체의 숲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만드는 커뮤니티 도시숲

문화·예술교육 특성화로 진로교육을 꽃피우는 학교

내일을 꿈꿀 수 있는 안산디자인문화고등학교



미디어콘텐츠과



공연콘텐츠과



패션섬유디자인과

21세기가 필요로 하는 창의적인 실력인이 되고자 하는가. 교양과 품격을 갖춘 문화인이 되기를 원하는가. 선생님과 함께 다양한 체험을 하며 인생을 논해보고 싶은가. 눈높이가 달라지는 가치 있는 교육을 만날 수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안산디자인문화고등학교(교장 한홍진, 상록구 본오3동 위치)다.

안산디자인문화고등학교는 미래 문화산업을 이끌어갈 재능을 가진 뉴 리더를 양성하기 위하여 독특한 학과를 운영하는 국내 유일의 문화예술 특성화고등학교이다. 디자인문화고는 동아리 활동이 활성화되어 있다. 동아리 발표회나 학과별 졸업발표회를 통해 끼를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주어진다. 체육대회, 축제 등도 디자인문화고를 선택하는 데 영향을 끼칠 만큼 큰 행사로 자리 잡고 있다. 취업, 진학 두 가지의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디자인문화고는 5개 과의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미디어콘텐츠과

정보화 사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자 미래 문화콘텐츠 산업과 첨단미디어 기술

을 융합하여 웹 기획에서 취재와 편집 그리고 신문, 잡지, 출판, 광고, 영화, TV드라마 등의 영상 문화콘텐츠 제작 분야에서 종사할 전문가를 양성하는 학과다.

인터넷비즈니스과

현대의 기업의 화두인 창조경영을 기반으로, 기업이 정신을 교육하며 그 베이직한 마케팅, 인사, 회계 등 경영전반을 아우를 수 있는 종합적인 실무능력을 갖춘 경영계열의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과정이다. 경영과 회계, 전산 실무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의 습득과 전자상거래 실무능력의 배양을 위해 상거래 시스템 관리, 창업실무, 인터넷 마케팅, 전산회계 등의 학습을 통해 전문 직업인으로서의 자질을 갖추어나갈 수 있는 학과다.

공연콘텐츠과

공연예술 연기자, 제작자, 기획자의 육성을 목표로 연극, 뮤지컬, 생활무용, 실용음악 등의 기초과정과 심화 전공과정으로 철저하게 교육하여 시대에 맞는 새로운 예술교육과 예술 창작의 패러다임을 제공하고 나아가 문

화 콘텐츠의 발전에 기여하는 공연예술계 진학에 중점을 둔 학과다.

시각디자인과

다양한 매체와 시각적인 방법을 통하여 창의력이 반영된 커뮤니케이션을 효과적으로 디자인하는 분야이다. 기초소묘, 발상과 표현, 광고디자인, 캐릭터디자인, 패키지디자인, CIP, 컴퓨터게임그래픽 등을 배우며, 보다 종합적인 사고와 방법론 등을 익혀 시각디자인·산업디자인·미술·만화·공예 계열의 진로에 중점을 두어 다양한 입시환경에 대처할 수 있는 실질적인 디자인 교육과 진로지도를 목표로 한 학과다.

패션섬유디자인과

무한한 잠재 시장이라 할 수 있는 현대 패션·섬유 업계가 요구하는 독창적이고 경제적인 패션 상품 생산을 선도하고 고부가가치 패션 상품을 개발하기 위한 이미지 발상 훈련, 패션일러스트레이션, 기초 봉제, 컴퓨터 그래픽, 디스플레이 능력 등 의복구성과 종

합적인 패션 상품 개발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 습득, 패션과 의상 디자인 계열의 진로 지도에 중점을 둔 학과이다.

디자인문화고 관계자는 "학생들이 즐거워하고 예의 바르고 인사성도 좋다. 문화·예술적 꿈과 끼가 많은 학생들의 성적도 우수하다. 지난 7월 안산문화재단과 문화예술·협력 MOU를 체결하는 등 지역사회 기관과의 협력으로, 우리 학생들이 마음껏 끼를 발산하고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 창의적이고 미래를 바라보는 발상을 가지고 문화·예술 쪽 선두주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학교다."며 학교 자량과 학생 칭찬에 여념이 없다.

민족과 인류에 희망을 주는 교육, 교육의 본질과 실사구시에 의한 바른 교육, 문화산업을 주도할 문화인재 양성을 교육관으로 삼는 디자인문화고, 문화와 예술의 리더를 향한 배움터 디자인문화고에서 행복한 꿈이 이뤄지기를 바라본다.

· 문의 : 안산디자인문화고등학교 ☎ 031-400-3116~8
이선희 명예기자 (iamyou70@hanmail.net)
사진 김진국 명예기자 (hanmarus@naver.com)



실수해도 괜찮아...

제1회 멘토-멘티 영어동화구연 프로그램

지난 22일 안산시 지원하고 안산교육지원청과 안산시 초·중·고등학교가 후원하며 안산대학교가 비영리 위탁 운영하는 영어체험 교육기관인 화정영어마을은 원곡초등학교에서 다문화가정을 위한 영어독서 멘토링 발대식을 갖고 제1회 안산대학교-안산원곡초등학교 멘토-멘티 영어 동화구연 발표회를 가졌다.

안산대학교 관광영어과 재학생 중 16

명의 멘토를 선발하여 원곡초등학교 32명의 멘티들을 상대로 영어동화구연 집중 트레이닝을 시작하였다.

보다 나은 양질의 영어독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트레이닝을 마친 대학생들은 일주일에 세 번씩 3주 동안 원곡초등학교 학생들을 만나 영어 학습에 대한 의욕을 심어주고 마음을 나누며 도움을 주고받는 과정을 통해 학습된 실력

을 영어 동화구연 발표회를 통하여 보여주게 된 것이다.

멘토와 두 명의 학생이 한 팀이 되어 주제를 정하고 배경을 보여주며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아이들의 모습엔 진지함이 가득하다. 서로의 눈빛을 마주하며 흑여 대사를 잊을까 응원을 해 준다. 유창한 영어 발음은 아니어도 많은 노력과 용기가 필요했음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다.

안산 화정영어마을 손기표 원장은 "영어 학습은 재미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멘토와 멘티 모두가 애써서 만든 이 자리가 오랫동안 기억에서 남아 앞으로 영어 학습의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또 원곡초등학교 김종보 교감선생님은 "세계는 영어를 모르고는 살아가 수가 없다. 따라서 항상 친근하게 끝까지 배워 자신감 넘치는 글로벌 인재가 되기를 희망한다."며 학생들을 자랑스러워했다.

멘토였던 김혜원 씨는 "같이 열심히 뛰어준 관광영어과 친구들과 원곡초등학교 학생들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싶다. 특히 저스틴선생님에게 감사하다. 더운 날씨와 바쁜 시간에도 서로 최선을 다해준 모두가 자랑스럽다"며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기를 당부했다.

현대 사회는 글로벌 경쟁사회이다. 경쟁력의 필수 조건인 언어 능력을 갖추고 문화를 이해하면서 세상의 중심으로 커 나가는 아이들이 되기를 희망해본다.

김선 명예기자 (itsumo9011@naver.com)

우리 지역의 동아리

“혼자 아파하지 마세요” 마음을 치유하는 미술치료 봉사활동



한양대학교 대학원에서 미술치료사 과정을 밟고 있는 김진숙씨, 이해란씨, 강보민씨, 김희경씨, 김희정씨(왼쪽부터)

“지적 장애를 앓고 있는 초등학교 5학년 남학생이 처음 미술치료 수업을 할 때는 도망다녔어요. 회기가 거듭되면서 이름 쓰는 것을 알려주었더니 본인의 이름을 연습하는 게 아니라 제 이름을 연습하더니 써주더라고요. 그때의 감동은 뭐라 표현할 수 없었죠.” 한양대학교 대학원에서 미술치료를 전공하고 있는 김희경 씨의 말이다.

미술치료는 심리치료의 일종으로 말로써 표현하기 힘든 감정이나 생각들을 미술 활동을 통해 표현하는 방법으로 감정을 정확하고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하며 자아 성장

을 촉진하는 방법으로 널리 쓰이고 있다.

지난 7월 25일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에서 만난 이들은 현재 대학원 선배들로 각각의 관심분야에서 미술치료 봉사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다. 산전 우울증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다는 김희경 씨의 첫 번째 봉사는 임신부를 대상으로 한 태교미술치료였다. 신체적 변화로 인해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했던 만큼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임신부들의 마음을 보듬어주고자 하는 마음이 컸기 때문이다.

미술학원 강사를 했던 이해란 씨는 “창작

활동인 미술교육에 있어서도 아이들의 창의적 활동을 독려하는 것보다 주입식 교육을 하는 현실이 개인적 성향과 맞지 않아 미술치료로 방향을 틀었다. 대화로 접근하기 어려운 상황도 다양한 소재를 사용한 미술을 매개로 다가갈 때 쉽게 마음을 여는 것이 미술치료의 큰 매력이다.”라고 말했다.

노인, 장애인, 어린이 등 보호와 관심이 필요한 곳에서 그림을 매개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 이들이 봉사활동을 통해 느끼는 가장 큰 보람은 무엇인지 궁금했다.

김희정 씨는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면서

처음 미술치료를 접하게 되었는데, 스스로 치유되는 경험을 하였고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관심과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아이들에게 관심을 갖게 되었다. 고아원에서 생활하던 초등학교 2학년인 아이가 4회기가 지날 때까지도 방어적인 자세를 취했었는데 5회기가 되자 자신의 이야기를 붓물 터뜨리듯 쏟아내는 것을 보고 ‘이 아이에게 정서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었구나’하는 생각이 뿌듯했다.”고 말했다. 노인대상으로 미술치료 활동을 하는 김진숙 씨는 “노인들의 정서에 맞게 재료를 선정한다. 휴과 고무신, 콩 등 과거를 회상할 수 있는 재료를 선택해 입체작업과 놀이를 접목한 활동을 하면 처음엔 다소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던 분들도 어린아이처럼 즐거워하시며 수업에 집중하실 때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강보민 씨는 “병원에서 청소년 대상으로 수업을 하는데 한 아이가 같은 그림과 반복적인 그림과 그리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제게 그림을 설명해 주었어요. 아이가 제게 마음을 열어준거죠.”라고 말했다.

자신을 가둔 틀 안에 갇혀 고통 받는 사람들과 소통하기 위해 미술치료의 세계로 뛰어들어온 이들은 말한다.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미술치료사라는 전문가로 거듭나다. 우리끼리 ‘박사’에 ‘봉사’라는 말을 농담으로 한다. 경험과 실력을 겸비한 전문가로서 그에 걸맞은 대우와 비용을 지불해주었으면 하는 것이 바람이다.”라고 말했다. 사람에 대한 이들의 열정이 ‘재능기부’나 ‘열정페이’라는 말로 희생되지 않기를 바라본다.

김은미 명예기자 (jami34@hanmail.net)

“실패하면 절대로 안 되는 사진을 찍는 거니까”

사진으로 슬픔을 보듬는 이웃 치유사 김동현 씨



깡충한 키에 헝 달린 모자, 큰 배낭을 짊어지고 밝게 웃는 얼굴로 동네 번쩍 서에 번쩍 나타나는 김동현 씨의 직업은 두 개다. 아름다운 가게 매니저이자 세월호 치유공간 ‘이웃(이하이웃)’의 무급 전속 사진기사.

서른 후반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소년 같은 인상을 주는 김동현 씨는 본인의 호를 ‘찰칵’이라고 할 정도로 사진작업에 남다른 애착을 가지고 있지만, 사진보다 사람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 사람이다.

지난 1년간 ‘이웃’에서 별이 된 단원과 아이들을 함께 기억하는 치유프로그램 생일모임의 사진을 연이어 찍으면서도 김동현 씨는 매번 피곤한 기색도 없이, 턱밑까지 차오르는 그리움이 눈물과 웃음으로 승화되는 순간들을 성실하게 담아왔다.

늘 생일모임 한 구석에서 있는 듯 없는 듯 셔터를 누르면서, 현장의 한 순간이라도 놓

치지 않으려고 예민하게 두 눈을 반짝이던 찰칵 김동현 씨를 만났다.

‘이웃’에서 처음 생일모임 사진을 찍었을 때 느낌은?

복지관에서 근무하는 지인에게 연락을 받고, 6번째 생일모임부터 사진을 찍게 됐다. 유가족분들이 완성된 앨범을 잠자기 전에 계속 넘겨보시면서 너무 좋아하신다는 말을 이웃 국장님에게 먼저 들었더니 정말 잘 찍어야 한다는 생각에 첫날에는 오버하면서 행사를 혼란스럽게 했던 것 같다. 그 뒤에는 반성하고 대표님 말씀대로 ‘고요하고 깊이있게’ 찍으려고 노력한다. 한 자리에서 있는 듯 없는 듯 조용하게 찍는다. 이미지만 생각하다가 실수하지 않도록, 그날의 분위기와 느낌을 충분히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사진을 찍도록 노력하고 있다.

생일모임 사진을 찍으며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은?

지금은 공식적인 행사 이후에 볼 수 있는 편안한 관계에 신경을 많이 써요. 유가족과 아이의 친구들, 봉사자들 사이에 일어나는 스톱에 중점을 두죠. 물론 정해진 포맷이 있는 공식적인 행사 때도 실패하면 절대로 안 되는 사진을 찍는 거니까 긴장은 되지만, 셔터를 되도록 적게 누르려고 해요. 그 이후에 오픈된 공간에서 역동적인 상황이 동시에

벌어지면 더욱 긴장되죠. 그 안에 단순한 슬픔만이 아닌 다양한 감정이 담겨요. 포옹하거나, 손을 잡는거나, 감정적으로 깊이 교류하는 순간들이 여기저기서 확확 지나가는데, 저는 그런 장면들을 유심히 찍는 것 같아요.

특별히 기억나는 순간이 있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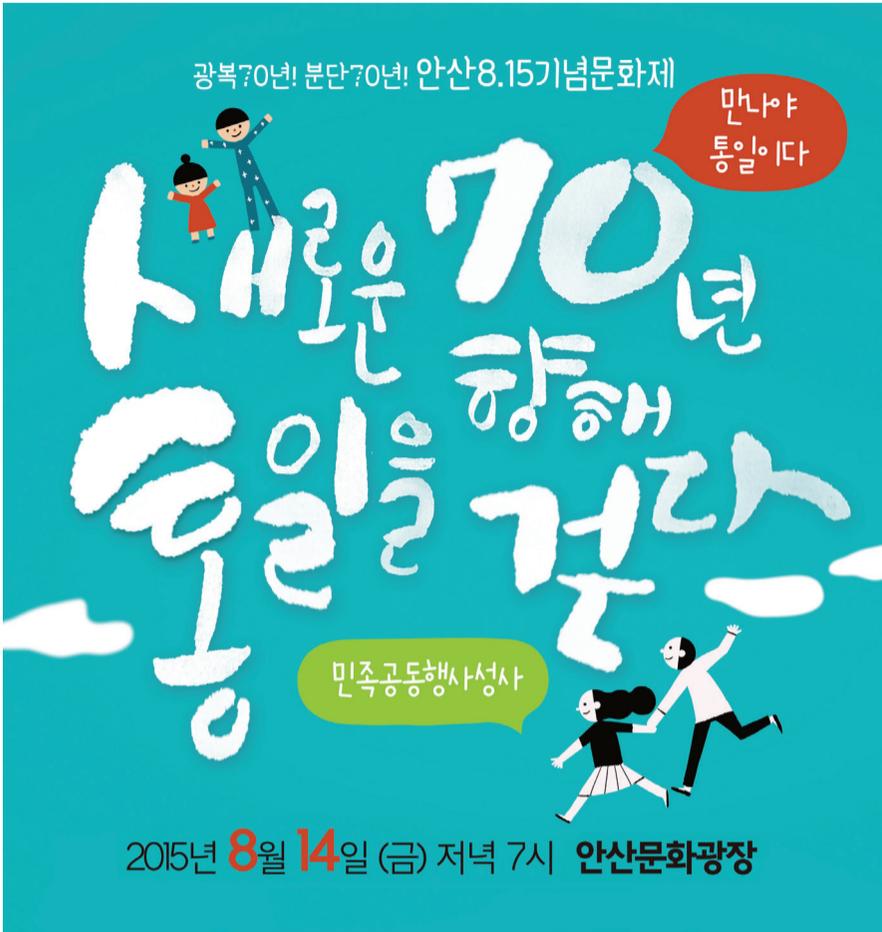
최근 장영이 생일모임 때 사진작업을 하면서 제게 큰 변화가 생겼어요. 그날 생일모임에 온 친구들이 다 소심한 거예요. 그런데 장영이도 그렇게 소심했대요. 친한 친구들 성격 안에 그 아이가 있는 걸 봤죠. 친구들 모습에서 그 아이의 모습을 볼 수 있겠구나, 이런 방향에 포커스를 맞춰 작업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항상 ‘이웃’에서 사진을 찍을 땐 ‘개별성에 집중하자’ 다짐하면서, 아이마다, 생일마다, 조금씩 다른 것들을 찾으려고 해요.

지난 번 우진이 생일 때는 친구들이 우진이 운동복 냄새를 맡더라고요. 같이 축구하며 놀던 친구들이니까 그냥 보는 게 아니라 냄새를 맡더라고요. 같이 땀 흘리고 서로 땀 냄새를 맡고, 그런 장면들이 제겐 중요한 거 같아요. 다양한 감각을 동원해 누군가를 그리워하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이 아이이기 때문에 다른’, 사진 한 장 정도는 찍어야겠다, 정말 한 장만 찍자, 라는 생각을 해요.

송보림 명예기자 (treehelper@naver.com)

“새로운 70년, 통일을 향해 걷다”

안산8.15기념문화제, 8월 14일 안산문화광장에서



광복 70년을 맞아 올해 안산에서는 특별한 행사들이 열린다. 8.15안산기념식 뿐 아니라, 200인 시민참여 퍼포먼스, 역사기행, 특별전시, 토크콘서트 등 다채로운 행사들이 시민들을 기다리고 있다.

먼저 8월 9일에는 '광복 70년, 안산의 역사를 걷다'라는 주제로 선감도 일대 역사기행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안산에 남아있는 일제강점기 시절의 흔적들을 직접 돌아보며 광복이 가진 역사적 의미를 되새겨 볼 수 있는 좋은 체험학습 기회다. 참가비는 5천원으로, 오전 9시 화랑유원 제3주차장에서 출발한다.

또, 안산시민 200인이 참여해 평화와 통일을 향한 희망의 메시지를 담은 퍼포먼스, '춤추는 평화'도 한창 진행 중에 있다. 이 프로그램은 안산8.15기념문화제 3부 행사로 공연될 예정이다. 퍼포먼스는 총 3개의 노래를 편집한 간단한 춤으로 구성된다. '문을 여시오', '가보고싶어', 윤도현의 '아리랑'을 조합한 음악에 맞춰 춤을 함께 추며, 젊은 세대가 더 유쾌하고 자유롭게 평화와 통일을 상상해 볼 수 있는 기회다. 그룹으로 신청할 경우, 춤선생님이 직접 방문해 퍼포먼스 동작도 직접 지도해 주고, 인터넷 영상을 통해 개별적으로 연습할 수도 있다. 한편 춤추는 평화 퍼포

먼스에 참여한 모든 시민들에게는 티셔츠가 제공되며, 자원봉사 시간도 부여된다.

8월 14일 저녁 7시부터 안산문화광장에서 열리는 안산8.15기념문화제에서는 8.15기념식이 끝난 후, 2부 행사로 광복과 분단으로 인해 개인의 삶에 영향을 받은 분들의 토크 콘서트도 열린다.

광복70년 분단70년 특별전시도 8월 14일부터 16일까지 안산문화광장에서 '안산의 힘! 새로운 70년을 준비하다'란 주제로 열린다. 특별기획전시 <우리는 진정 해방되었나>, 안산의 독립운동역사를 다룬 <삼일로에서 선감학원까지>, 평화 통일될 한반도의 미래를 상상한 <상상하라! 번영과 평화>등 다양한 전시가 기획되어 있다.

44개 단체가 참여한 8.15안산추진위원회에서 홍보를 맡고 있는 안산새사회연대대다 강소영 사무국장은 "어느덧 광복 70년 분단 70년의 시간이 흘렀는데, 아직도 분단을 해소하고 통일로 한반도를 움직여달라"며 이 행사의 추진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행사는 평화통일의 기운을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가자는 의도로 특별히 참여형 퍼포먼스로 기획하게 됐다"며, "많은 시민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 평화와 통일에 대한 주제를 진지하게 생각해보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문의 : 8.15안산추진위원회 ☎ 031-411-6150
송보림 명예기자 (treehelper@naver.com)

야간운동교실에 가는 시간이 기다려져요

누구나 무료로 참여 가능한 야간운동교실

지난 7월 20일 어둠이 내리기 시작한 8시 즈음 호수공원 중앙무대로 사람들이 모여든다. 준비 운동 음악이 나오자 먼저 도착한 참여자들의 몸 풀기 군무가 시작된다. 상록수보건소 야간운동교실 담당자가 귀띔한 대로다. 마니아층이 두꺼운 야간 운동교실의 매력이다. 오랜 시간 함께 운동을 하며 다져진 춤꾼들의 군무. 보는 이들마저 건강해지는 느낌이다.

때마침 운동시간에 맞춰 호수공원 중앙무대 옆에는 상록수보건소에서 인바디, 혈당, 혈압, 일산화탄소 호기 등 건강 체크를 해주어 시민들의 줄이 길게 이어졌다. 야간운동교실 참여자 중 건강위험군과 질환군은 통합 건강관리실 또는 고혈압, 당뇨병 등록교육센

터에 연계하여 1:1 맞춤형 건강상담과 교육으로 건강행태 개선에 힘쓰고 있다.

야간운동교실은 권역별 운영으로 지역주민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운동실천 분위기를 조성해 규칙적인 운동 실천을 향상시키고 있다. 또한 규칙적인 운동실천으로 생활의 의욕과 자신감 성취, 대사증후군과 심뇌혈관질환 등의 유병률을 감소시킬 것을 기대하고 있다.

야간운동교실에서는 에어로빅, 새천년 건강체조, 다이어트댄스, 스트레칭, 건강 걷기 등이 이뤄지고 있다. 상록구 11개소, 단원구 10개소 야간운동교실이 운영되고 있으며 대략 시간은 8시부터 9시까지 1시간 실시된다. 한 시간 동안 신나는 음악에 맞춰 운동하니

땀이 옷을 적신다. 산책 나온 시민들도 신나는 음악에 이끌려 운동을 따라 해본다. 동작 순서를 모르지만 난처하지도 부끄럽지도 않다. 신나는 음악에 맞춰 몸을 흔들며 안 쓰던 근육들이 모두 깨어나게 한다. 그래서 근력 강화에도 효과적이다.

약 150명의 시민들이 함께 한 이날 야간운동에는 안산시 관계자가 참석해 "건강을 위해 야간운동 교실에서 운동하라는 말을 들었다. 건강하고 활기차게 사는 게 제일이다. 운동 열심히 하시고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란다"며 시민들과 함께 음악에 맞춰 운동을 했다.

서해아파트에서 온 주현희(48세) 씨는 "생활의 활력이 된다. 여기 오는 시간을 기

다리며 즐겁게 운동하러 온다. 허리가 없었는데 허리 라인이 생겼다. 올해 3년째인데 근력운동을 해서 그런지 칼질도 옛날보다 힘이 덜 들어가고 좋다. 강사가 동작을 설명하면서 하기 때문에 초보자도 따라할 수 있다. 내 몸의 대사증후군도 알게 됐는데 운동으로 늦춰지는 느낌이고 다운된 세포가 살아난 듯하다. 강사분이 즐겁게 잘 가르쳐줘 제대로 따라하면 운동량이 굉장하다"며 야간운동의 만족감에 즐거워했다.

야간운동교실 강사는 "초창기부터 빠지지 않고 오신 분들이 많으며 멀리서도 찾아온다. 체조와 댄스, 에어로빅 위주로 했는데 올해는 라인댄스를 병행한다. 라인댄스로 인해 연세 있는 분들도 많이 참여한다"고 말했다.

시민 누구나 무료로 참여 가능한 야간운동교실에 건강한 활력을 찾아보자.

• 문의 : 상록수보건소 ☎ 031-481-5925, 5930
단원보건소 ☎ 031-481-3493
이선희 명예기자(iamyou70@hanmail.net)

상록구 야간운동교실

지역	장소	요일	운영시간
사동	호수공원	월, 수, 금	20:00~21:00
사동,본오동	용하공원	화, 목	20:00~21:00
사동	감골운동장	월, 수	20:00~21:00
본오동	반월공원	화, 목	20:00~21:00
이동,일동	성호공원	월, 수	20:00~21:00
사3동	수변공원	화, 목	20:00~21:00
성포동	성어공원	월, 수	20:00~21:00
사동	은하수공원(신설)	월, 수	20:00~21:00
성포동	노적봉폭포	화, 목	19:30~20:30
사동	석호공원	화, 목	20:30~21:30
부곡동,월피동	시냇운동장	화, 목	20:00~21:00

단원구 야간운동교실

지역	장소	운동 요일	운영시간
선부동	셋터공원	화,목,금	19:00~20:00
와동	와동체육공원	화,목,금	20:30~21:30
초지동	둔배미공원	월,수,금	20:00~21:00
고잔동	민속공원	월,화,목	20:00~21:00
고잔동	광덕공원	월,수,금	19:30~20:30
초지동	화정천(와스타디움 앞)	월,수,금	20:00~21:00
고잔동	중앙공원	월,수,금	20:00~21:00
선부동	달미공원	월,수,금	20:00~21:00
고잔동	별빛광장	화,목,금	19:30~20:30
원곡동	관산운동장	화,목,금	20:00~21:00

※ 금요일은 걷기 운동만 실시 ※ 8월 17일부터 안산 문화광장(선근광장) 월, 수 20:00~21:00 실시예정

안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안산통신사, 안산의 숨겨진 역사 유적지 ‘재조명’



안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안산통신사’가 17일 지역 역사유적지 5곳에 대한 현장 답사를 실시했다.

안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Original 안산! 안산통신사’(연구책임의원 이상숙, 이하 안산통신사)가 지역 역사 유적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현장활동을 했다.

이상숙 의원을 비롯한 ‘안산통신사’ 소속

의원들은 지난 17일 안산 지역에 위치해 있으면서도 주민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유적지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타 시군 사례와의 비교를 위한 현장답사를 진행했다.

이날 신길역사유적공원과 시흥 능곡선사

유적공원, 노적봉 성황당터, 단원미술관 김홍도컨텐츠관, 취몽헌 오태주 및 명안공주 묘역에서는 비석 등 유적에 담긴 선조들의 예술미를 되새기는 한편, 서예가인 오태주와 명안공주와의 사연을 공유했다.

치를 재발견하는 기회를 가졌다.

신길역사공원에서는 이 일대에서 발굴된 신석기 유물들이 국립중앙박물관에 보관돼 있을 정도로 역사적 가치가 높은 곳이지만, 그에 따른 홍보와 공원 시설이 미흡하다는 점에 의원들의 의견이 일치됐다.

이어 시흥 능곡선사유적공원으로 이동한 의원들은 이곳 시설 답사를 통해 향후 진행될 신길역사공원 재조성의 아이디어를 얻었으며, 상록구 노적봉 성황터에서는 지역 주민의 증언을 통해 성황터의 역사적 가치를 확인했다.

아울러 단원미술관 김홍도컨텐츠관을 방문해 시설을 둘러보며 개관 준비 사항을 점검했고, 상록구 사사동에 위치한 취몽헌 오태주 및 명안공주 묘역에서는 비석 등 유적에 담긴 선조들의 예술미를 되새기는 한편, 서예가인 오태주와 명안공주와의 사연을 공유했다.

이상숙 연구책임의원은 “지난 17일 의원연구단체의 중간보고를 실시하는 등 단체의 활동이 반환점을 넘긴 시점”이라며 “남은 활동 기간에도 지역 역사 유적을 발굴, 재조명해 안산의 문화·역사적 유산을 시민들과 함께 나누는 데에 단체의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료제공: 안산시의회

“대부도 방아머리 먹거리 관광자원 개발·육성

수라조개찜, 어부밥상, 바지락호박국수



안산시는 우수외식업지구 대부도 방아머리 음식거리 활성화를 위해 올해 2월부터 4개월 동안 향토문헌조사, 지역조사, 식재료조사 등 연구를 통해 대부도의 역사·문화·생활사를 담은 스토리가 있는 대부도 대표 향토음식을 개발했다.

대부도 대표 음식으로 바지락 칼국수에 만 국한되어 있으나,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대부도 해산물 및 지역특산물을 이용한 수라조개찜, 어부밥상, 바지락호박국수를 대부도 대표 향토음식으로 개발했다.

임금님 수라상에 진상되던 ‘수라조개찜’ - 당시 대부도 어느 양반집에서 준비했을 임금님 밥상은 수라상공의 지휘 아래 가장 질이 좋은 재료들로 차렸다고 한다. 기록에 의하면 각종 야채와 산나물, 그리고 생선,

낙지, 조개류 등 지역특산물을 수라상에 올렸다고 한다. 특히 수라상에는 반드시 찜을 빼놓지 않았던 것으로 볼 때 아마도 질 좋은 해산물을 엄선하여 만든 찜 요리를 진상하였을 것이다. 그 옛날 임금님이 드셨던 요리를 재현해 현대인이 맛볼 수 있다는 것은 음식문화적 측면에서도 뜻 깊은 일이다. 건강을 중시하는 오늘날의 음식문화 경향과 맞물려 웰빙푸드로도 손색이 없다. 이처럼 수라조개찜은 임금님 수라상에도 진상되었던 고귀한 음식인 만큼, 대부도를 찾는 관광객에게는 더욱이 흥미롭고 건강에 이로운 먹거리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보인다.

‘어부밥상’ - 대부도는 지형적 특성으로 보았을 때 섬이기는 하지만 밭작물과 논농사가 발달하였고 농한기에는 물고기를 잡

는 어로 행위가 활발했다. 이처럼 번다한 생활속에 농어민은 음식 또는 밭이나 배위에서 손쉽게 먹을 수 있는 것을 선호했을 것으로 보인다. 밭고랑이나 배위의 좁은 공간에서 영양이 있는 음식을 섭취하기 위해서는 커다란 양푼에 질 좋은 재료를 넣어 비벼먹는 것이 가장 효과적였을 것이다. 어부밥상은 우리 선조들의 애환이 깊게 밴 음식이기는 하지만 현대적 관점에서 보면 그만큼 웰빙음식도 찾아보기 힘들다. 산과 들에 지천인 산나물과 야채, 그리고 갯벌에서 갓 건져 올린 싱싱한 바지락을 원없이 듬뿍 넣어 된장으로 간을 맞춘 비빔밥, 한순 듬뿍 풀어 넣어 썩썩 비벼던 함초는 그 성분이 과학적으로 밝혀지면서 오늘날 최고 건강보조식품으로 각광받고 있다.

‘바지락호박국수’ - 대부도는 농업이 발달한 섬인 만큼 야채종류의 특산물도 다양하다. 특히 늙은 호박은 춘궁기에 구황작물로서도 기능을 해 거의 모든 집에서 길렀다. 최근 호박은 그 영양학적 가치가 재조명되면서 웰빙음식 품목에서 빠지지 않을 만큼 선호도가 높다. 우리밀에 호박을 넣어 반죽하여 면을 만들어 낸 것이다. 여기에 이미 잘 알려진 바지락 국수처럼 바지락을 듬뿍넣어 끓여내면 맛이나 영양적인 측면에서 한층 더 품미가 올라 간 국수 탄생 뿐만 아니라 비타민E 덩어리이자 불포화지방산으로 유명한 들기름으로 요리함으로써 건강을 생각하는 현대인이 더욱 좋아할 수밖에 없는 요리이다.

이와 같이 대부도의 역사·문화·생활사를 담은 스토리 있으며 해산물을 활용한 대표 향토음식을 방아머리 음식점 대상으로 7월 15일부터 6회 걸쳐 조리기술과 개발음식 셋팅까지 전수교육을 한다. 기술을 전수받은 음식점은 영업메뉴로 정하여 관광객에 제공하여 음식관광 자원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식품위생과 관계자는 “전수교육이 끝나면 방아머리 음식점 컨설팅 방문교육을 할 예정이며, 개발된 대부도 대표 향토음식을 대내외에 부각시키는 물론 관광자원화하여 먹거리, 볼거리가 풍부한 음식관광도시를 만들고자 한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안산시 식품위생과

Photo in Ansan

사진으로 보는 안산

대부바다향기 테마파크

사진 김진국 명예기자 <hanmarus@naver.com>

안산M밸리 록 페스티벌

사진 김진형 명예기자 <econojin@naver.com>



대부바다향기 테마파크

• 위치 안산시 단원구 대부북동 • 한줄 정보 대부도 방아머리 입구에 자리잡은 테마파크로서 튼림축제와 안산M밸리록페스티벌이 이곳에서 개최된다.



안산M밸리록페스티벌

• 위치 안산시 단원구 대부북동 • 한줄 정보 국내외 최정상급의 아티스트와 함께하는 뮤직 페스티벌로 매년 7월 경에 '대부바다향기 테마파크'에서 열린다.

독/자/투/고

안산의 어린이들을 숲으로 데려가자

برا보안산 소식지, 자연미술치유가 이경윤 씨의 '숲 치유를 말하다' 기사를 읽고



유치원 교사를 해 봤던 필자는 개인적으로 아이들의 '숲 체험교육'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 안산시 소식지에 자연미술치유가 이경윤 씨의 '숲 치유를 말하다' 기사가 실려 매우 유익하게 읽고 배울점도 참 많았다.

이분은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경일고등학교에서 숲 치유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기사 끝부분에서는 숲을 즐거운 놀이터로 느끼도록 활용하는게 좋다고 했다.

숲에서 할수 있는 무궁무진한 놀이, 어릴

때의 기억을 떠올려 보면 진정 숲에서의 놀거리가 넘쳐나는데 우리 안산에도 숲치유 교육을 할수 있는 풍부한 녹지를 갖추고 있다. 그것을 잘만 활용한다면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자연과 친구가 될수 있는 숲치유 교육을 얼마든지 시켜줄수 있지 않을까.

어린이들에게 숲이란, 실로 '위대한 자연'이며 지구 자연생태계의 축소판이라 할수 있다.

도시의 거대한 콘크리트 건물과 아파트 숲에 사는 아이들에게 안산시 곳곳의 훌륭한

한 명품 숲은 신께서 안산시에 내려준 천혜의 보물이고 선물이다.

일전에 독일에서 본 '숲과 유치원 교육'에 대한 내용을 토대로 숲과 교육에 대해 우리 부모님들께 알려드리고 싶다.

유치원의 발상지인 독일에선 세계 최초의 유치원을 연 프리드리히 프뢰벨이 이렇게 가르친다.

"어린이들을 숫자와 글자가 아닌 자연 속에서 뛰놀게 하라"고.

독일에는 현재 벽에 둘러싸인 건물도 없고 컴퓨터나 장난감도 없는 숲 유치원이 700개 정도 있으며 숲 유치원에 다닌 어린이들은 일반 유치원에 다닌 어린이보다 상상력과 의사소통, 집중력이 뛰어나며 병에도 덜 걸린다고 한다. 이처럼 유치원생들에게 읽기, 쓰기 교육에 집중하지 않고 자연 속에서 뛰놀게 하는 이유는 아이들이 숲 속에서 교육 활동들이 다음과 같은 효과를 거둘수 있기 때문이다.

첫 번째, 숲은 매년 신기한 것이 많은 하나의 훌륭한 교실이다. 즉 숲 속의 나무, 식물, 동물, 곤충들의 모습과 선과 색은 미술 교실이며 이들이 만들어 내는 소리는 음악

교실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한 체험 중심의 학습을 통해 흥미를 유발시켜 높은 학습효과를 거둘수 있다. 숲은 학생들의 오감을 자극하고 손과 발을 움직여 배우기 때문에 머리로 생각한 것을 보충하고 확인할수 있는 기회를 준다.

세 번째, 숲의 구성원으로서 자연을 바라 보면서 환경문제의 해결점을 찾을수 있다. 생태계는 서로 상호의존 또는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생태계의 원리를 체험적으로 이해할수 있는 것이다.

네 번째, 숲의 흙냄새는 인간에게 이로운 향생물질이며 식물이 자신의 몸을 지키기 위해 방출하는 피톤치드는 병균을 억제하고 신경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해준다.

안산의 어린이들을 숲으로 데려가자. 그곳에서 나무와 자연의 숨소리를 들려주고, 숲의 향기로 샤워를 시켜주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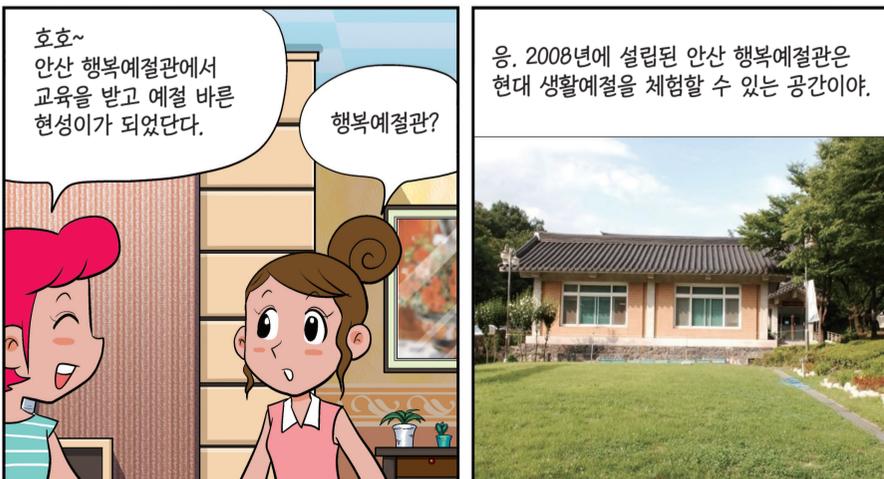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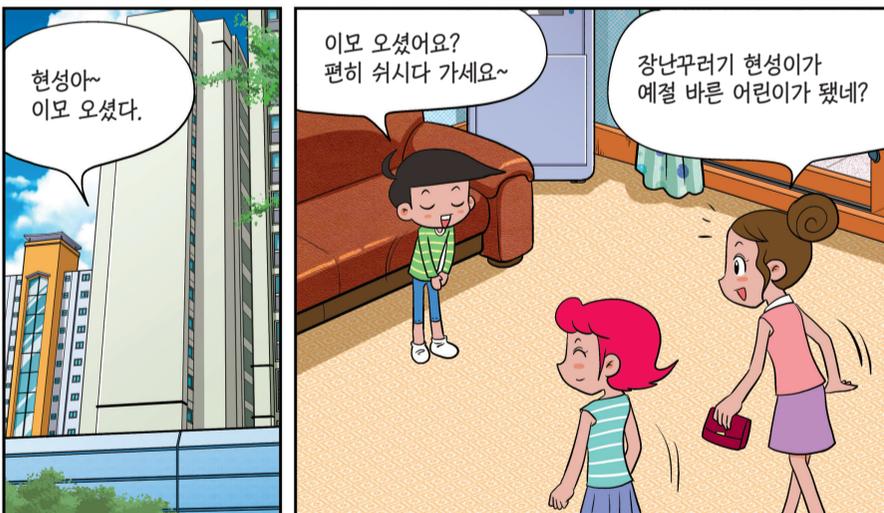
유은진 (상록구 본원로)

생활 속 이야기를 보내주세요. 채택 시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무료 구독신청 031-481-2042, E-mail : bravo@iansan.net

안산의 자랑

< 안산시 행복예절관 >

글·그림 이영호(kaljebi05@naver.com)



어린이, 청소년, 시민예절, 다문화 등의 프로그램으로 예절중심의 교육이 운영되고 있는데



삶의 지혜와 배려, 존중을 기본성품으로 하여



학생들의 올바른 성장을 돕는 데 일조하고 있단다.



· 위치 : 안산시 단원구 보배2길 64-8 (고잔동) · 문의 : 031-475-0323

안산 시니어 클럽 교육생 모집

- 모집기간 : 2015년 8월 1일 ~ 8월 21일
- 교육대상 : 만 55세 이상 구직자
- 교육비 : 무료
- 참여혜택 : 100%출석 시 출석수당 5만원 지급
- 모집인원 : 총 30명
- 구비서류 : 신청서(기관 소정양식) 및 본인 통장사본 각 1부.
- 접수방법 : 직접 방문
- 문의 : 안산시니어클럽 김선희 과장 ☎ 401-8181)

제18회 안산시 중소기업대상 후보자 모집

- 모집기간 : 2015. 8. 10 ~ 8. 21(12일간)
- 대상자 : 안산시 관내 3년이상 가동중인 기업대표 또는 근로자
- 신청방법 : 기업지원과 방문 접수 (추천서와 증빙서류)
- 신청서류 : 안산시 홈페이지 - 고시공고 참조('중소기업대상' 조회)
- 문의 : 기업지원과 ☎ 481-2841)

안산시여성문학회 시민문학대학 2015년 2학기 수강생 모집안내

- 9월 첫 주 개강 / 각 반 선착순 10명 모집
- 문의 및 등록 : 010-3725-8786(총무) / 010-2632-2801(회장)

과목	지도교수	요일/시간	장소
시 창작 1	신동욱 한양대 ERICA 기초융합교육원 강의교수	1, 3주 수, 오후2시	안산평생학습관 302호
시 창작 2	고운기 한양대 ERICA 문화콘텐츠학과 교수	1, 3주 화, 오전10시	한양대학교 시문학관
소설	이재복 한양대 ERICA 한국언어문학과 교수	1, 3주 월, 오전10시	한양대학교 시문학관
수필	김양희 한양대 ERICA 기초융합교육원 교수	1, 3주 수, 오전10시	안산평생학습관 302호
문법, 바른문장쓰기	김태경 한양대 ERICA 기초융합교육원 교수	2, 4주 월, 오전10시	한양대학교 시문학관

• <http://cafe.daum.net/ansanwl> (안산여성문학회 홈페이지)

※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안산문화재단 8월 기획공연



창작 마임극 <아낌없이 주는 나무>

공연일정 : 2015년 8월 6일(목)~8월 8일(토) 3시, 7시
 공연장소 : 안산문화예술의전당 별무리극장
 출연 : 안산문화재단 청소년극단 고등어
 관람연령 : 5세 이상
 관람료 : 전석 1,000원
 공연내용 : 나무처럼 푸르른 청소년, 그들이 표현하는 새로운 내용의 '아낌없이 주는 나무'를 통해 지난 날의 추억 여행으로 떠나 보자



청소년연극제 <네거리에서 서서>

공연일정 : 2015년 8월 13일(목)~16일(일) 3시, 7시
 공연장소 : 안산문화예술의전당 별무리극장
 출연 : 안산강서고, 초지고, 안산고, 원곡고 연극반
 관람연령 : 7세 이상
 관람료 : 전석 1,000원
 공연내용 : 안산강서·안산·원곡·초지고 연극부 학생들이 보여주는 작품을 통해 네거리 이정표 앞에서 자신이 가고자 하는 길을 잠시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한다.



청소년 음악 무용 공연 <Dance Da & Minjja Band>

공연일정 : 2015년 8월 14일(금)~ 15(토) 금 7시, 토 5시
 공연장소 : 안산문화예술의전당 해돋이극장
 출연 : 안산문화재단 청소년 댄스팀 & 밴드팀
 관람연령 : 7세 이상
 관람료 : 전석 1,000원
 공연내용 : 안산문화재단 청소년 댄스팀 Dance Da 와 청소년 밴드팀 Minjja Band의 합동 공연. 안산시 청소년들의 끼와 예술적능력을 발휘하는 종합 공연 발표회



클래식 <스페인 밀레니엄 합창단_2015 에스빠냐 아리랑>

공연일정 : 2015년 8월 20일(목) 7시 30분
 공연장소 : 안산문화예술의전당 해돋이극장
 출연 : 스페인밀레니엄합창단
 관람연령 : 6세 이상
 관람료 : 전석 무료 (신청 : 안산문화재단 콜센터 080-481-4000)
 공연내용 : 광복 70주년을 맞아 민족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고, 나아가 다문화가정 및 외국인 근로자들에게도 대한민국의 긍지와 자긍심, 지역 사회가 다문화와 함께 소통해 나가는 방향을 제시한다.

안산지역! 성폭력·학교폭력·가정폭력·불량식품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내겠습니다.

성폭력

- 여성청소년과 확대 개편, 성폭력·가정폭력·학교폭력 사건을 전담
- 여성수사팀내 여경4명 성폭력 피해자 전담조사관으로 임명, 세심한 피해자보호
- 신상정보등록 성범죄자 1:1 밀착관리로 재범 방지

학교폭력

- 학교전담경찰관이 관내 전학교(55개교)에 상주하며 학교 주변순찰, 범죄예방교육, 상담실 운영
- 전담경찰관이 가해·피해학생에 대한 멘토링 실시로 선도·보호조치

가정폭력

- 가정폭력전담경찰관이 가정 폭력 피해자와 가해자를 지속적으로 사후관리, 재범방지 및 피해자 보호
- 가정폭력발생시 현장경찰관이 출동, 가해자 접근금지 등 적극적인 피해자 보호
- 상습 폭력 가정, 지속적 사후관리로 정상회복 지원

불량식품

- 「불량식품 수사전담반 설치」 첩보 수집활동 및 단속활동 지속적 추진
- 「행정처분외리」, 「불량식품의 신속한 압수·폐기」 등 철저한 후속조치

학교폭력 상담·신고는 117, 가정폭력 상담은 1366, 범죄신고는 112



안산단원경찰서